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자립준비청년들이 지각하는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최 서 정

자립준비청년들이 지각하는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

지도교수 신 윤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최 서 정

최서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7월

위 원 장 김 창 대 (인)

부위원장 김 동 일 (인)

위 원 신 윤 정 (인)

국문초록

‘자립준비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하다가 만 18세부터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을 일컫는다. 이전까지는 ‘보호종료아동’으로 알려져 왔으나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공식명칭이 변경되었다. 매년 전국적으로 2,600여 명 중 약 56%의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 연령인 만 18세로 보호 체계가 만기 된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심리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지지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퇴소 후 자립과 정착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의논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2021년부터 기존의 퇴소 나이인 만 18세에서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24세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퇴소 후 자립 수당도 인상되는 등 지원체계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해당 개선책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전 자립준비청년 관련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단기적인 효과성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장기적인 효과성이 있는 정책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제 경험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 후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는 지,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 지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다.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마주하게 되는 진로 선택은 생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본 연구에서는 심리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지지

체계가 취약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진로탐색에서의 어려움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어려움을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개념도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탐색 어려움의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립지원 대상인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9명을 대상으로 초점질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로 진행된 일대일 인터뷰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질적분석을 통해 진로탐색 어려움에 관한 진술문을 총 136개 도출하였다. 도출된 진술문들을 종합 및 편집하여 총 43개의 대표 진술문을 만들어 2차 자료 수집에 활용하였다. 2차 수집 과정에서는 9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을 시행해 개념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43개의 진술문에서 2개의 차원에서 5개 군집들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결과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기간~퇴소임박기간'인 어려움 발달시기 축과 '사람과의 관계~객관적 정보'인 필요자원 축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5개의 군집으로 인식되었는데, 군집 A는 '다양한 진로 탐색 및 경험이 박탈된 진로 환경' (11문항), 군집 B는 '진로정보 획득 기회의 결핍' (11문항), 군집 C은 '물질적 독립이 최우선시 되는 진로 선택' (9문항), 군집 D는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상실 관련 진로 불안' (4문항), 마지막으로 군집 E는 '자기이해 및 내적 탐색 기회의 결핍' (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탐색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지각하는 어려움을 탐색하고, 이들이 보호 종료 후 어떠한 고민과 경험을 하는 지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탐색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본 연구는 추후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책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심리지원의 개선 방향성을 제공하는 근거 자료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진로탐색의 어려움, 진로 제약, 진로, 개념도
학 번 : 2021-23641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문제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
제 1 절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현황 ····· 4
제 2 절 자립준비청년 진로발달의 한계 ····· 6
1. 자립준비 청년의 진로발달 ····· 6
2. 진로이론: 일의 심리학 중심 ····· 8
3. 자립준비 청년의 진로 제약 ····· 10

제 3 장 연구 방법 ····· 12
제 1 절 개념도 연구 방법 ····· 12
제 2 절 연구 참여자 ····· 13
1.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 13
2. 초점질문 개발 참여자 ····· 15
3. 아이디어 진술문의 종합편집 및 적절성 평가 참여자 · 15
4. 대표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참여자 ··· 16
제 3 절 연구절차 ····· 18
1. 개념도 준비 단계 ····· 19
2. 아이디어 산출 단계 ····· 19
3. 진술문 구조화 단계 ····· 20
4. 개념도 분석 ····· 21
제 4 절 연구 타당도와 신뢰도 ····· 22
1. 타당도 확보를 위한 방안 ····· 22

2.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 ····· 23

제 4 장 연구 결과 ····· 24
제 1 절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탐색 어려움 ····· 24
제 2 절 진로탐색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차원 ····· 26
1. 차원의 수 ····· 26
2. 차원별 요인의 분포 및 차원의 해석 ····· 29
제 3 절 개념도 군집 및 군집별 진술문 ····· 34
1. 좌표 값을 사용한 군집 분석 결과 ····· 35
제 4 절 군집별 대표 진술문 ····· 40
1. 군집 A: 다양한 진로 탐색 및 경험이 박탈된 환경 ····· 40
2. 군집 B: 진로 정보 획득 기회의 결핍 ····· 45
3. 군집 C: 물질적 독립이 최우선시 되는 진로 선택 ····· 50
4. 군집 D: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상실 관련 진로 불안 · 54
5. 군집 E: 자기이해 및 내적 탐색 기회의 박탈 ····· 56
제 5 절 진로탐색의 어려움 중요도 ····· 60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64
제 1 절 연구의 의의 ····· 64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67

참고문헌 ····· 69
Abstract ····· 82

표 목 차

<표 1>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표집 선정 기준 ···· 13
<표 2> 진술문 생성과정 참여자 인적사항 ····· 13
<표 3> 연구 단계별 참여자 특성 ····· 15
<표 4>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 대표 진술문 ····· 22
<표 5> 차원별 스트레스 지수와 설명량(R^2) ····· 25
<표 6> 좌표값으로 산출된 군집 및 군집별 진술문 ····· 35
<표 7> 중요도 상위 점수의 진술문 ····· 50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절차 ····· 16
[그림 2] 차원별 스트레스 플롯 ····· 25
[그림 3] 다차원분석결과 (1차원x2차원) ····· 27
[그림 4] 군집분석(Ward 방법) 덴드로그램 ····· 34
[그림 5] 개념도 ····· 3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진로 탐색과 함께 시작되는 자립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건경한 자립을 통해 자유를 주체적으로 누리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양육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이 자립을 통해 사회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신윤정, 이은설, 2018; Grotowska-Lede & Kudlinska-Chroscicka, 2021). 하지만 적절한 교육과 양육을 받지 못한채 바로 독립적인 자립을 요구받는 아동 및 청소년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 중에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가정이나 보호체계가 견고하지 않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자립과 동시에 본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다. (이정애, 김시아, 김지선, 정익중, 2019). 매년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대다수가 생계 문제로 인해 진지한 진로 고민을 하기 어렵다 (이상정, 2020). 진로 탐색이 미흡한 청년들은 자립하는 과정에서 생활기술의 부족, 심리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9).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진로의 어려움은 한 개인에게 전생애를 거쳐 어려움을 제공한다 (고관우, 김동주,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 단계별 이해가 부족하며 실제적 방향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은 진로와 관련된 교육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위한 지원으로 이루어져 왔다. 진로 탐색이 미흡한 청년들은 자립하는 과정에서 생활기술의 부족, 심리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강현아, 신혜령, 박은

미, 2009;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9).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지는 성인으로서의 진로 과정은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불안하고 막연한 과정이다 (이상정 외, 2019; 최경옥, 김수정, 2018). 따라서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 후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진로를 선택하는 지 확인하여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자립준비청년들 대상의 연구들은 퇴소 후 단기적인 지원 효과 또는 단기적인 경험에만 초점이 맞춰져 와있다. 이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춰진 특성으로도 확인 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고 어떠한 진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구체화 되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탐색 과정의 어려움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양육에 대해 고찰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성취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촉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윤정, 이은설, 2018; Grotowska-Lede & Kudlinska - Chroscicka, 2021). 진로교육 및 상담 분야 내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 관련 어려움을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대학생이나 고졸 취업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선행 연구들이나 참고자료나 개입을 위한 이론 등의 체계가 현저히 부족한 탐색 단계라 볼 수 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단계가 일반적 대학생이나 고졸 취업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인 탐색이 부족했음 보여준다 (유설희, 한세영, 2022). 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해 비슷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력 무관 자립생활 정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보호 종료 이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입장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 경험에 대해 개념도 연구방법(concept mapping; Trochim, 1989)을 활용하여 탐색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문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은 진로탐색 어려움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념도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혼합 연구 방법인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아래에 제시된 초점 질문을 사용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인식하는 어려움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초점 질문: 지금까지의 나의 진로탐색 경험에서의 제약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1. 내게 적합한 직업 또는 일을 고려할 때 어려웠던 경험이있나요?
2. 내게 적합한 직업 또는 일을 고려할 때 어려웠던 경험을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해당 초점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연구 문제 1: 자립준비청년이 지각한 진로탐색 경험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자립준비청년의 진로탐색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자립준비청년이 부여하는 어려움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진로탐색 과정에서 인식하는 제약의 차원과 군집은 무엇인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현황

자립준비청년은 대리양육 체계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을 말한다 (이상정, 2020).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은 이전에는 보호종료아동으로 지칭되어왔으나, 2021년부터 18세 성인인 이들을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으로 공식적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들은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지속 보호의 필요성이 확인 될 경우 보호기간 또한 연장이 될 수 있다 (양은별, 김태우, 박은혜, 이소연, 정익중, 2015). 매년 약 2,600명의 보호아동 중에 보호 기간이 만료하는 56%의 아이들이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된다. 56% 중 15%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대학 진학률인 70.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확인된다 (e나라지표, 2021). 대학에 진학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계속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67.8%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문길, 정은희, 원종욱, 임완섭, 김기헌, 박형존, 2017; 이상정 외, 2019).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 (이상정 외, 2019)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일반청년의 3배에 달하는 50%이다. 그중 대다수인 37.4%가 자살 생각에 대해 특별히 대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 이들이 상당수 고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자립준비청년들은 원가정의 보호를 받는 청년들에 비해 정서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사소하게는 공과금을 내거나 자취방을 계약하는 일에서부터 가정에서 학습하는 예절, 생활방식과 같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퇴

소 후 자립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하는 과정에서 자립생활기술 부족, 심리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강현아 외, 2009; 김지선 외, 2018; 장혜림 외, 2017).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지는 성인으로서의 자립 과정은 전국 단위에서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약 2만 8,000명의 아동들에게는 불안하고 막연한 과정이다 (이상정 외, 2019; 최경옥, 김수정, 2018). 특히, 진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 (이정애 외, 2019). 자립준비청년들은 취업이나 구직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빈번하며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서 실패하면 다시 돌이키기 힘든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 양은별 외, 2017; 장혜림 외, 2017). 이러한 자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이 최대 24세로 연장되었고,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5만원이 인상되어 매달 35만원 지급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국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도 강화되었다. 위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 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립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관하여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보다 폴란드에서 먼저 실행이 되었으며, 관련 논문을 통해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에서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보호기간 연장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Grotowska-Leder & Kudlińska-Chróścicka, 2021). 해당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관에서의 직접적인 관심과 정서지원, 진로지원 등 더 실질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Super (1957)의 생애 진로단계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까지의 탐색기 동안 개개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자아 개념을 확립하여 진로를 선택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따라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생활비 지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자아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보다 세세한 지원도 필요하다.

제 2 절 자립준비청년 진로발달의 한계

1. 자립준비청년의 진로발달

진로라는 것은 한 개인이 사회로 나가게 되면서 자립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자원들을 활용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김기중, 오연풍, 2017; 권성은, 안진아, 2020). 진로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인간의 생애는 어느 시기에 한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 달성해가는 과정이다 (지은, 신윤정, 김지선, 최서정, Ayse Isilay Konuk, 2021; 신윤정, 2013). 현대사회에서 직업의 의미는 그저 금전적 수단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에 따라 청년들은 능력과 소질을 파악하여 적절한 직업을 탐색하고 싶어한다 (박윤희, 2016). 합리적인 진로탐색이란, 자신의 특성을 평가하고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최동선, 정철영, 2003; Flum & Blustein, 2000; Porfeli & Skorikov, 2010; Stumpf & Lockhart, 1987). 전 생애에 걸친 진로 탐색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과 국내 논문은 대학교를 진학하는 초기성년기의 직업 선택(school to work transition)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혜원, 김안나, 2020; 김봉환, 김계현, 1997). 이는 대학 진학률이 낮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 관련 연구가 현저히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확인되어진다. 한편, 국내 대학 졸업 집단의 자립과 사회적응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설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현아 외, 2009; 허민숙, 2018).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학졸

업 직후의 자립준비청년들만 조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들의 대학 졸업 이후의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진로가 여러번 전환되는 경험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다. (권성은, 안진아, 2020; 곽미선, 홍은선, 정지은, 2020; Bluestein,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국내 대학생 21,780명 중 약 60.0%가 '졸업 후 진로'를 자신의 가장 큰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환, 정철영, 2019; 장현진, 이지혜, 2012). 이러한 역동 안에서 학생 시절의 계획과 교육뿐 아니라 아닌, 전생애를 거친 진로 상담이 중요해지고 있다. (공윤정, 2014; 유정미, 최윤정, 2021; 허보연, 김봉환, 2012).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의 생성과 소멸, 세계화 등 빠른 변화들로 인해 여러번의 진로탐색과 전환은 자연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권성은, 안진아, 2020; 곽미선, 홍은선, 정지은, 2020; Bluestein,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은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포함한 진로탐색과 진로 전환을 불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 대학생 21,780명 중 약 60.0%가 '졸업 후 진로'를 자신의 가장 큰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환, 정철영, 2019; 장현진, 이지혜, 2012). 따라서 이러한 역동 안에서 한 개인이 기능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학생시절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육뿐만이 아닌 전생애적 진로 상담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공윤정, 2014; 유정미, 최윤정, 2021; 허보연, 김봉환, 2012).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필요한 진로 탐색이란 한 개인이 진로 결정이나 진로 선택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최동선, 정철영, 2003; Flum & Blustein, 2000; Porfeli & Skorikov, 2010; Stumpf & Lockhart, 1987). 하지만 충분한 흥미 탐색과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변인들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전통적 진로이론과는 다른 진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외부 환경적 제약인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현대 진로 이론들의 관점에

대한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다 (김하나 & 이수진, 2019). 그와 동시에 한 특정된 집단, 즉 자립준비청년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이론 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현대 진로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일의 심리학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이하 'PWT'라고 부른다)'이다.

2. 진로이론: 일의 심리학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중심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교육수준의 성장으로 현대사회에서 일과 진로는 더 이상 개인에게 생계유지만의 의미가 아닌,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Blustein, 2008; Blustein, D., Kenna, A., Gill, N., & DeVoy, J. 2008). 이러한 진로의 중요성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는 진로 선택, 진로 발달과 같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신윤정, 2013; 안진아, 정애경, 2019). 홀랜드의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 구성주의 이론 등 다양한 전통적인 진로이론들에서는 '만족스러운 진로 발달을 위한 개인내적 변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진아, 정애경, 2019; Duffy, Blustein, Diemer, & Autin, 2016). 초반의 진로이론과 다르게 현대 진로 이론은 개인내적 변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맥락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김하나 & 이수진, 2019, 지은 외, 2020). 이 중 하나는 일의 심리학 이론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이다. Duffy 외 (2016)는 일의 심리학 이론 (PWT)은 개인내적 변인 뿐만이 아닌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도 그만큼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맥락적 요인들을 강조했다. PWT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진로발달에 관심을 가진 새로운 진로 패러다임으로서 맥락적 요인들은 진로탐색과 결정에 제약을 주며 이를 개개인이 대처하는 역량도 강조하고 있다 (박숙경, 이지연, 2020; 안진아, 정애경, 2019; 전주람, 신윤정, 2022; Duffy et al., 2016).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를 살피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내적인 요인들을 넘어 외부요인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PWT 이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PWT는 기존 진로이론들에서 강조되는 개인내적 변인들을 최우선으

로 고려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외부 환경적 제약이 있음에도 본인이 최소한으로 만족할 만한 괜찮은 일(decent work)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PWT는 사회구조적인 제약과 장벽들에 대한 대처역량을 강조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괜찮인 일도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진아, 정애경, 2019). 전통적으로 일과 진로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나 PWT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개인이 수용할만한 수준의 질의 일을 괜찮은 일로 정의하는 것이 근래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제약적 측면을 제시함으로서 현실적인 이론으로 평가된다 (안진아, 정애경, 2019; Duffy, Velez, England, Autin, Douglass, Allan, & Blustei, 2018).

이러한 특징은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뿐만이 아닌 재취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을 하고 있을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자원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으며 준비과정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주변 자원의 한계로 고립된 자립 적응과 진로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 이때 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떠한 제약을 경험하고 이를 대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PWT를 활용해 설명할 수 있어보인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일이란 제한적 범위 안에서 선택해야한다는 금전적 필요성으로 이전 연구들에서는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일이란 꿈을 이루는 도구라기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존 도구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애 외, 2019).

모든 아이들에게 자립과 진로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중요하기때문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는 다양한 경험이 권유되고 있다.그에 비해 상황적 제약 측면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은 다양한 선택과 경험을 해보기보다는 바로 어른이 되어야한다 (Grotowska-Leder & Kudlinska-Chroscicka, 2021; Leloux-Opmeer, Kuiper, Swaab, & Scholte, 2016). 자립준비청년들은 합리적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충분

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Krieshok, Black, & McKay, 2009). 즉,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개인내적 변인들을 최대로 만족하는 선택을 갈망하기보다는, 개인의 외부적 조건을 포함하여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간주된다 (Krieshok et al., 2009). 따라서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스스로가 만족할만한 선택을 하며, 이때 선택하게 될 괜찮은 일(decent work)은 개인이 사회에서 생존하고, 타인이나 사회와 연결되며,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확인된다 (안진아, 정애경, 2019).

3. 자립준비 청년의 진로 제약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강의 형식의 자립 준비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되어 왔으며, 퇴소 후에 취업 및 진로 변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여겨진다 (이상정, 2020). 진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진로만족에 영향을 주며 진로만족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Lounsbury, Park, Sundstrom, Williamson, & Pemberton, 2004).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경험과 어려움을 정리하는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에 필요한 진로상담 및 지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진로 지원 및 프로그램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소수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른 일반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학생들의 진로 속도와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에 맞춰져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당장 생계를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선택과 결정을 감당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맞지 않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의 선택에서 어떠한 결과와 욕구를 원해 어떠한 일을 선택하게 되는지와 그 선택을 위해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전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탐색에서의 어려움의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진학과 취직에 있어 환경과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로 거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진로에 대해서는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크게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자립정착금과 거주 문제에만 고민이 중점되어 있다 (이상정 외, 2019). 실제로 이와 같은 정책 위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안희란 & 이용교, 2020; Steenbakkers et al., 2018). 대부분의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진로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보다 퇴소 직전인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부터 진학, 취업, 주거 등과 관련한 고민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상정 외, 2019). 취업, 주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진로와 관련된 진학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취업과 학업에 한정되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점이 한계다. 따라서 추후 연구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하는 진로 과정에 대한 개념화 및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확인해야함을 제안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연구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 현상적인 문제에만 더 관심을 받았다. (안희란 & 이용교, 2020). 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에서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 되었다 (이정애 외, 2019; Duffy et al., 2018; Steenbakkers et al., 2018). 그렇기에 자립준비청년들의 인식 및 경험에서 구성요소들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으며, 복합적인 내적 그리고 외적 변인들을 고려하며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괜찮은 일(decent work)에 도달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경험들과 제약을 확인하고 싶었기에 이를 진로탐색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진로탐색은 진로 탐색(exploration)의 행동과 진로 결정(career decision making), 그리고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를 포함하는 경험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조절변인들인 일 자유의지(work volition)

와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 관계를 조절하며 괜찮은 일(decent work)에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개념도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탐색 경험을 다차원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도 연구방법은 질적인 연구 방법과 양적인 연구방법을 통합한 것으로서, 어떠한 현상이나 구성요소 및 구조 등을 명료화할 때 적절하게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개념도 연구를 활용해 참여자들이 현상적 경험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인 인식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개념도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Paulson et al., 1999; 남지은, 남지혜, & 김동일, 2020; 최윤정 & 김계현, 2007). 개념도 연구의 큰 장점은 참여자로 하여금 직접 항목을 생성하고 자료를 모으는데 보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심층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최수미, 김동일, 김주선, 2019; 최윤정, 김계현, 2007; Trochim, 1993). 따라서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지각한 진로탐색 제약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 탐색 경험을 2차원으로 설정해 이들이 어떤 군집의 형태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항목과 군집을 위치를 개념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 각 요인들의 기저 구조를 분석하였다.

개념도 연구방법은 크게 두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자립준비청

년에 미치는 제약에 대한 문항 선정 작업이다. 문항 선정 과정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인터뷰을 통해 관련 문항을 도출했다. 둘째는, 선정된 문항에 대한 유사성 및 중요도 분석이다. 유사성 분석 과정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카드로 제작된 각 문항을 분류하고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평정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인식차원과 차원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 참여자

1.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을 위해 자립생활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 (만 19세~ 24세)을 모집하였다. 개념도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를 결정할 때 적절한 참여자 수는 최소 8명(민경화, 최윤정, 2007; Goodyear, Tracey,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기준을 고려하면서, 더이상 새로운 진술문이 언급되지 않는 자료의 포화(saturate)가 되는 순간(박애실, 2020; Kane & Tochim, 2007; Truscott, Paulson, & Everall, 1999)을 고려하여 최종 참여자 수를 9명으로 결정하였다.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에 참여자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시설출신 자립준비청년일 것, ②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18~25세 일것, ③직업경험 또는 대학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일 것,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 하는 참여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은 다양한 가정외 보호를 받음으로써 그 보호방식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매우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종료 기간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으

며, 직업경험이 있거나 대학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탐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졌다. 따라서 해당 경험이 없는 경우는 배제되었다.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표집 선정 기준

1.	시설에서 가정외보호를 받은 자립준비청년
2.	보호종료된지 5년 이내의 만 18~25세 자립준비청년
3.	직업 경험이 있거나 대학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해당 연구 참여자들은 눈덩이표집과 SNS홍보를 통해 모집되었다. 연구 참가에 앞서 모든 참가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소개와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참가자가 자발적인 동의하에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진술문 생성과정 참여자 인적사항

내용		사례 수
성별	여자	7
	남자	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3
	2년제 학부 졸업	2
	4년제 학부 졸업	3
	석사 과정	1
재직 상태	재직	4
	구직	5

해당 기준에 맞는 총 9명의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제시된 특성으로는 여성이 7명, 남성이 2명으로 대다수가 여성이였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인 참여자는 3명, 2년제 대학 졸업생은 2명,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명이였으며, 1명은 4년제 대학 졸업 후 현재 석사 과정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특징적으로는 한 참여자는 시설에서 만기 퇴소를 한 것이 아닌 중도 퇴소를 한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그 퇴소 기간이 만기 퇴소와 차이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포함 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취업 상태는 구직 중 5명과 재직 중 4명인 것을 확인하였다. 취업에서의 재직은 현재 풀타임 직업 (full time)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 구직은 풀타임 직업 (full time)이 아닌 파트타임 (part time)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면담 참여자들은 본연구의 초점질분에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산출해낼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초점질문 개발 참여자

초점 질술문 개발과정에서는 총 4명의 전문가와 2명의 참여자가 참여하였다. 상담 영역에서 다수의 연구를 실시한 현직교수 1인과 참여자로서 개념도 연구 참여자 경험이 있는 상담 자격증 1급을 보유하고있는 박사 과정생 1인에게 자문하고 수정하였다. 나머지 2명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석사과정생이다. 연구자는 선정한 초점질문 예시안을 적절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의 형태로 제시되도록 피드백하며 초점질문을 개발하였다.

3. 아이디어 진술문의 종합편집 및 적절성 평가 참여자

아이디어 질술문 개발과정에서는 이전 4명의 전문가와 2명의 참여자가 참여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 중 최종 학력이 대학 진학 이상의 참여자들 중 2명은 본 연구 연구자가 고찰하여 선정한 43개의 아이디어 진술문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탐색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서 적절하지를 확인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중복되거나 의미하는 바를 벗어난 진술문이 없는지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별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 연구자가 고찰하여 선정한 43개의 아이디어 진술문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탐색에서 경험하는 어려

움으로서 적절하지를 확인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중복되거나 의미하는 바를 벗어난 진술문이 없는지를 판단하였다.

<표 3> 연구 단계별 참여자 특성

연구 단계 (참여 인원)	참여자 특성
초점질문 개발 (3명)	• 전문가 1: 현직교수 (교육상담 전공) • 전문가 2: 석사 (교육상담 전공) • 파일럿 인터뷰 참여자: 남 1, 자립준비청년
개별 면담 (9명)	• 여자 7명, 남자 2명의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평균연령 23.2세)
대표진술문 개발 (6명)	• 초점질문 개발 전문가 2명 • 전문가 3: 박사 (교육상담 전공) • 전문가 4: 석사 (교육상담 전공) • 개별 면담 참여자 중 2명 (최종학력이 학사 수료 이상인 여자 1명, 남자 1명)
대표진술물 유사성 분류 및 평정 (9명)	• 개별 면담 참여자 중 여자 7명과 남자 1명, 추가 남자 1명의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평균연령 23.4세)

4. 대표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참여자

위의 절차들을 걸쳐서 완성된 최종 아이디어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에는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참여자 중 7명이 참여하였다. 2명은 개인 사정으로 연구자가 요청한 기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로 추가적으로 다른 2명의 참여자를 구해 진행하게 되었다. 해당 참여자들 또한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표집을 위한 선정 기준에 맞는 참여자들만 참여하도록 설정하였다.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의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3.3세였으며, 남자가 2명, 여자가 7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시설에서 가정 외 보호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분류 시 최소 두 개 이상의 문장들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전체 군집은 2개 이상이라는 규칙에 맞춰서 직접 분류하였다 (Kane & Trochim, 2007). 분류 후 각 그룹의 명칭과 그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는 개념도 결과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각 진

술문에 따라 각 진술문들의 어려움 중요도 수준을 5점 Likert 척도 (1=중요하지 않던 어려움이다, 5=영향이 컸던 중요한 어려움이다)로 평정하였다.

제 3 절 연구 절차

개념도 연구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볼 수 있다. Kane과 Trochim (2007)은 개념도 연구 과정을 크게 ① 개념도를 위한 준비 (Preparing for concept mapping), ② 아이디어 산출 (Generating the ideas), ③ 진술문의 구조화(Structering the statements), ④ 개념도 분석 (Concept mapping analysis, ⑤ 개념도 해석 (Interpreting the maps), ⑥ 개념도 활용 (Using concept mapping in planning and evalution)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 개념도 준비
▪ 예비 면접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질문지 개발 ▪ 연구참여자 모집 및 선정
⇓
2단계: 아이디어 산출
▪ 개별 인터뷰 진행 및 축어록 제작
⇓
3단계: 진술문 구조화
▪ 진로탐색과정에서 어려움에 해당하는 기초 진술문 추출 ▪ 기초 진술문 통합 및 편집하여 대표 진술문 생성 ▪ 대표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동의 수준 평정
⇓
4단계: 개념도 분석
▪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 실시 ▪ 군집의 수와 차원 결정 ▪ 개념도 작성
⇓
5단계: 개념도 해석
▪ 차원과 군집 해석 ▪ 동의 수준 비교

[그림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 과정을 근거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탐색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개념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개념도 준비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초점질문을 만들고 연구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연구 시작 전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준비 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진로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하는 진로탐색의 어려움에 대해 환경 특수적 요인과 개별 특수적 요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예비 연구를 통해 초점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1명의 자립준비청년의 인터뷰 진행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맞는 초점진물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피드백과 함께 질문을 좁혀갔다. 이를 통해 완성된 초점 질문은 '지금까지의 나의 진로탐색 경험에서의 제약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이였으며, 이를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진로탐색 경험을 PWT의 decent work 개념에 맞추어서 '내게 적합한 직업 또는 일을 고려할 때'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그와 함께 '어려웠던 경험이있나요?' '어려웠던 경험을 어떻게 대처하였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직관적이고 풍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히였다. 해당 자립준비청년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였으며, 현재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활동가로서 활동하기에 해당 인터뷰 진행에 적합하다고 보여졌다.

2. 아이디어 산출 단계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인 두달동안 다음 단계인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탐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진술문을 생성을 진행하였다. 진로탐색에서의 어려움 관련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모집한 9명의 자립준비청년들과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다. 실시하기 전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취지를 소개하고, 초점질문에 대해 안내하였다. 코로나 상황과 참여자의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맞추기 위하여 원격화상 플랫폼인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실질적인 인터뷰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행의 예습을 참여자별로 실시 하였으며,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조용한 개별적인 장소에서 참석하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다. 연구자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일대일 개별면담을 진행하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면담 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최소 1시간 30분에서 최대 2시간 진행하여 평균적으로 1시간 56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질문 초점을 명료화하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질문과 답변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적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연구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제공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7번째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했을 때 이전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였으며, 9번째 참여자와 면담 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탐색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포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3. 진술문 구조화 단계

연구 참여자 9명과의 개별 면담 녹음 내용을 본 연구자가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모두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인터뷰에서 나온 개인정보는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축어록을 읽으면서 의미 단위별로 기초 진술문을 추출 및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추출된 기초 진술문들은 참여자별로 최소 10개에서 최대 23개 사이의 아이디어를 산출하였으며, 수집된 아이디어 진술문은 총 136개였다. 해당 기초 진술문들은 합의팀 각자에게 의미 단위를 더 세분화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표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합의팀은 모든 기초진술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정과 논의를 반복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아이디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핵심어, 주제, 개념적 영역에 근거하여 종합, 편집하는 근거를 통해 기초 진술문들을 통합 및 편집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공통된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술문의 수를 100개 이하로 축약할 것을 권장한 Kane과 Trochim(2007)의 제안으로 본연구에서는 핵심어를 참고하여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기초진술문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작업을 한번더 진행하여 43개의 대표 진술문들을 완성하였다. 해당 43개의 진술문들은 면담을 참여한 2명의 참여자들이 의미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피드백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마지막으로 합의팀과 문장들이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와 표현을 더 간략하게하는 작업으로 수정하여 43개의 대표진술문을 추출하였다.

4. 개념도 분석

개념도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대표 진술문의 유사성을 범주화로 그려진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라수현, 김창대, 2022; 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의 개념도 제작을 위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탐색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한 진술문들을 유사성에 따라 직접 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토딩을 작성하였다. 동일 범주로 묶은 진술문은 0, 다른 범주로 묶은 진술문은 1로 코딩하여 연구 참여자의 수만큼 43×43의 개인별 비유사성 행렬표(dissimilarity matrix)를 만들었다. 총 9개의 정방대칭형의 비유사성 행렬표를 파일을 합산하여 집단 비유사성 행렬표(group dissimiliarty matrix)를 제작하였다. 비유사성 행렬표에서는 숫자가 작을 수록 해당 진술문 짝이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분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SPSS 25.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ALSCAL(Alternating Least

Squares sCALing) 방법으로 집단 비유사성 행렬표에 대해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척도 결과인 합치도 지수(stress vlaue)와 설명량(R)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탐색 과정에서 지각한 어려움에 관한 적절한 차원의 수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셋째,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산출된 각 진술문의 차원 상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각 진술문들을 유사한 개념의 진술문끼리 모은 군집으로 형성하였다. Ward 방법은 거리에 기반해 군집을 분류하기 때문에 개념도 연구에서 자료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데 유용하다는 근거를 활용해 Ward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ane & Trochim, 2007). 또한 군집의 적절성과 하위 군집을 확인하기 위해 중심값 연결법(centroid-linkage)과 평균 연결법(average-linkage)에 의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두 결과와 비교하였다. 덴드로그램을 비교한 결과 군집 수와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Ward 방법의 5군집으로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제 4 절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1. 타당도 확보를 위한 방안

군집결과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리에 기반해 군집을 분류하는 Ward 연결법 외에 중심 연결법과 평균 연결법을 함께 실시하여 군집의 적절성과 하위 군집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술타당도(testimonial validity) 군집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도출한 기초 진술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의 관점과 달리 도출된 표현이나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진술문 추출 시 연구자의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Bedi, 2006).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표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작업 시 각 범주에 대해 명칭을 붙여달라고 요청하여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였다. 또한 초점질문 개발, 기초진술문 및 대표진술문 작성, 개념도 분석 및 해석 등 개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합의팀과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행하였다.

2.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개념도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비유사성 행렬표 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Bedi, 2006; Trochim, 1993; Rosas & Kane 2012).

첫째, 개인 대 개인 행렬간 상관분석을 통한 평균 신뢰도로 문항간 상관의 평균과유사를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평균 신뢰도는 .203이였다. 둘째, 문항-전체 상관의 평균과 유사한 개인대 전체 행렬 간 평균 상관은 0.342였다. 셋째, 반분 전체 행렬 신뢰도 계수(split-half total matrix reliability)를 산출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반분한 4명과 5명의 비유사성 행렬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Spearman-Brown 공식으로 교정한 것이다 (김현령, 2022; Trochim, 1993). 분석결과 4명과 5명의 비유사성 행렬 간의 상관계수는 .383($P<0.1$)로 나타났으며, Spearman-Brown 교정계수는 .279이다. 마지막으로 무작위로 반분한 4명과 5명 집단의 스트레스 값을 비교 하였다. 두 스트레스 값을 비교하여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인데, 그 결과 4명의 잡단 참여자의 스트레스 값은 0.311 그리고 5명의 집단 참여자의 스트레스 값은 0.298을 나타냈다. 이는 모두 적절한 스트레스 값인 0.205~ 0.365 범위 안에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탐색 어려움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지각한 진로탐색과정에서의 어려움의 공통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 축어록을 작성한 후, 축어록에서 상담경험에 대한 136개의 기초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이 진술문들을 연구자가 1차로 개념적 영역에 따라 진술문들을 묶었고, 각 묶음이 적절한지 합의팀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각 묶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진술문을 선정하였다. 대표 진술문은 <표 4>와 같다.

<표 4> 자립준비청소년의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 대표 진술문

번호	자립준비청소년의 진로탐색과정에서의 어려움 대표진술문
1	내가 성장기를 보낸 시설은 퇴소 후 취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2	학교에서 진로 관련 조언을 주는 선생님들은 취업률에만 관심 있었다.
3	거주할 곳이 안정적이지 못해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선호하였다.
4	입시 준비 시 보호종료 아동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
5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을 몰라 진로 관련 질문을 해보지 못했다.
6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까다롭다.
7	시설동기들과의 진로발달 과정이 다르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8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정보가 아니였다.
9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받게되면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양한 유급 직업체험을 할 수 없었다.
1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상대적으로 어린나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다.

11	직업 정보 획득이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해 해야했지만, 인터넷 서칭을 사용한 정보들은 상세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았다.
12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당장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했다.
1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사회기업에 취직하였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가치관과 비전에 실망하게 되어 그만 두었다.
14	금전적 안정이 우선시되다 보니 일에 대한 성취감을 찾기 힘들었다.
15	시설친구들과 가까이 사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무리하게 찾았다.
16	주변에 진로 관련해서 물어볼 어른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17	시설에서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이 많았다.
18	퇴소하기 전까지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한정적이였다.
19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먼저 해주는 어른이 없었다.
20	진로에서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21	퇴소하기 전까지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다.
22	주변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지 않았다.
23	고등학교 안에서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전공을 바꿀 수 없었다.
24	부가적인 학업적 지원의 부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25	고등학교 진학부터가 퇴소 후의 삶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중학생 때부터 전공을 선택했어야 했다.
26	시설은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할 수 밖에 없던 환경이었기에 퇴소 후인 진로선택후에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
27	시설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인한 반항심이 생겨 엇나감으로써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없었다.
28	진로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하는 부담감이다.
29	퇴소 전에는 뭐든 스스로하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갖기 어려웠다.
30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경험이 적어서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다.
31	시설에서 학업외의 배우고 싶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금전적 지원해줄 수 없었다.
32	지원받는 시기가 지나서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
33	전문적인 입시 및 진로 컨설팅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없었다.
34	퇴수 후에 다른 진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35	시설에서 받은 진로교육은 실용적이지 못했다.
36	대졸학력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37	나를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38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조건을 미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39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40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41	직업 조건 및 요건에 관련해 찾아야한다는 조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42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나의 한계로 느껴졌다.
43	시설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대학진학을 권유를 한 것이다.

제 2 절 진로탐색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차원

1. 차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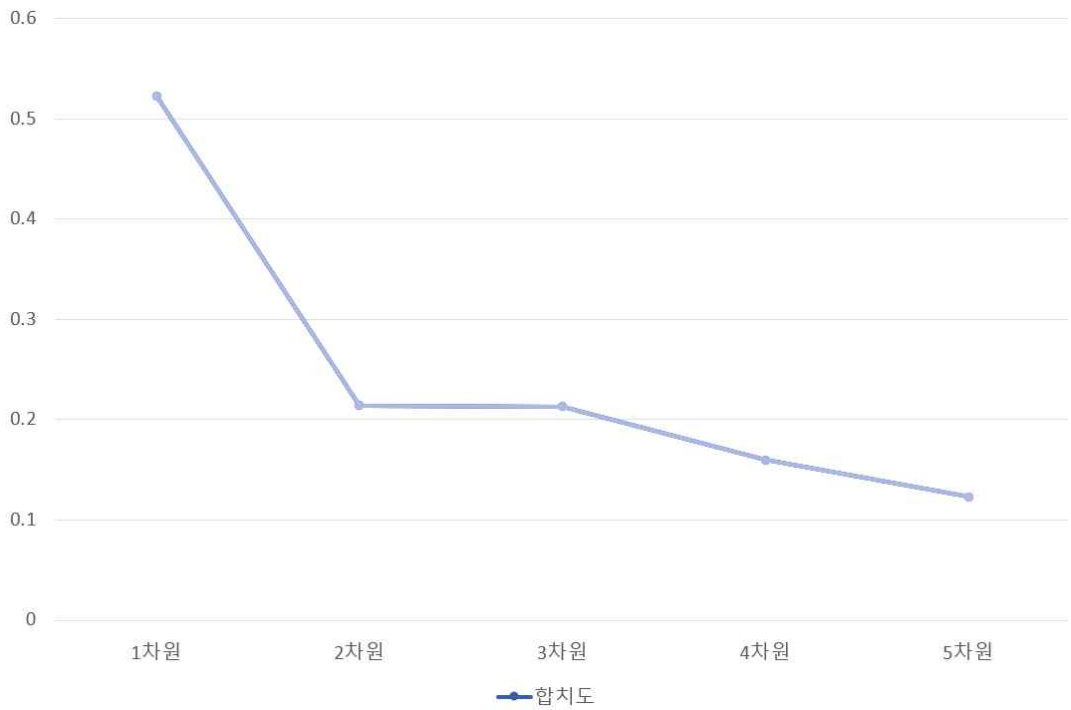
시설에서 보호기간을 보낸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탐색 중에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어떤 차원에 따라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접에 참여한 7명과 추가 모집한 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유사성 평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43개의 대표 진술문 목록을 제시하고, 유사하게 인식되는 진술문끼리 묶는 방식으로 유사성 분류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표 진술문을 최소 3개에서 최대 8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M=4.88, SD=1.53). 이들이 분류한 유사성 평정자료를 바탕으로 다차원분석을 하기 위해 비유사성 행렬표를 제작하였다. 비유사성 행렬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해당 진술문 짝이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분류한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나타난 각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stress)와 설명량(R^2)은 <표 5>와 같다. 또한 산출된 각 차원별 스트

레스 지수를 점으로 표시하고 [그림 2]와 같이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을 그렸다.

<표 5> 차원별 스트레스 지수와 설명량(R^2)

차원의 수	합치도(stress)	설명량(R^2)	R^2 증가량
1	.523	.261	-
2	.314	.493	.232
3	.213	.637	.144
4	.160	.717	.080
5	.125	.787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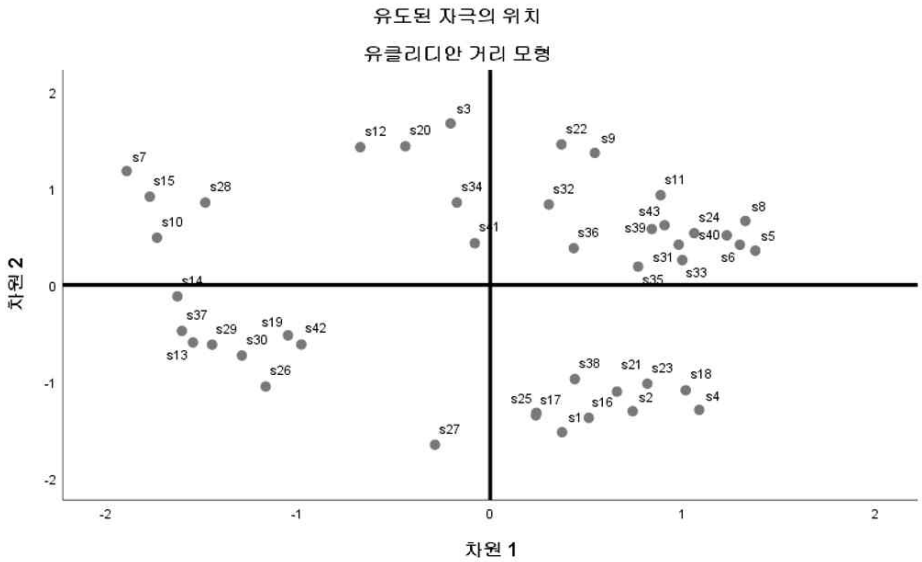
[그림 2] 차원별 스트레스 플롯

차원의 수는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에서의 합치도, 해석 가능성, 단순성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김현령, 2022; 박광배, 2000). 합치도는 참여자가 평정한 유사성 자료가 결과

로 도출된 차원에서의 거리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스트레스 값(Stress) 값으로 표현된다. 스트레스 값이 적을수록 합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38개의 개념도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차원척도 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지수 범위를 적절한 스트레스 값이라고 제시되었다(Kane & Trochim, 2007).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 도출된 차원의 수에 따른 스트레스 값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2차원까지 추출하였을 때 합치도는 .314 (R^2=.493), 3차원까지 추출하였으 때 합치도는 .213 (R^2=.637), 4차원까지 추출하였으 때 합치도는 .160 (R^2=.717), 5차원까지 추출하였으 때 합치도는 .125 (R^2=.787)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차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 2]에 제시된 스트레스 플롯 (stress plot)을 확인하면 2차원에서 합치도 값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3차원 이상의 차원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트레스 플롯이 처음으로 크게 꺾이는 지점(elbow)에서 차원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수현, 김창대, 2022; Rosas & Kane, 2012). 이는 완만하게 감소하게된 플롯은 그 이상 차원의 수가 증가하여도 스트레스의 감소이자 합치도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연구참여자들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와 공간상에 나타난 거리의 불일치가 크고 자료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지수가 작을수록 합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령, 2022; 박광배, 2000; Kane & Trochim, 2007).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은 해석가능성과 간명성이다 (김현령, 2022; 최규하, 주영아, 2022). 각 군집들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차원은 다차원척도 분석의 결과를 복잡하게 만들고, 차원의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감소하지만 그만큼 해석 가능성과 간명성은 낮아진다 (박광배, 2000).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추출된 진술문들을 2차원과 3차원의 공간에 배치했을 때 진술문과 차원의 의미를 2차원에서 더 정확하게 구분 및 해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합치도와 스트레스 플롯, 해석 가능성과 간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낮은 차원의 단순한 공간으로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군집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2차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차원척도 분석 기준을 통해 2차원으로 차원의 수를 결정하였다. 각 차원의 좌표값을 기준으로 진술문의 위치를 2차원 도면에 제시하면 〔그림 3]과 같으며, 전체 진술문의 좌표값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그림 3] 다차원분석결과 (1차원x2차원)

2. 차원별 요인의 분표 및 차원의 해석

다차원분석 결과인 2차원 개념도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이 높다고 인식한 것을 의미하며, 멀리 떨어진 진술문은 유사성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Trochim & McLinden, 2017). 산출된 1차원(X축)과 2차원(Y축)의 좌표 값을 토대로 각 차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X축. Y축 양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1차원(X축) 좌표값을 기준으로 정적인 방향 끝에 위치한 진술문들로 정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원(X축) 좌표값 기준으로 정적인 방향 끝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다음과 같다.

번호	진술문	좌표값
5.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을 몰라 진로 관련 질문을 해보지 못했다.	1.378
6.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까다롭다.	1.297
8.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정보가 아니였다.	1.326
11.	직업 정보 획득이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해 해야했지만, 인터넷 서칭을 사용한 정보들은 상세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았다.	0.885
24.	부가적인 학업적 지원의 부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1.06
31.	시설에서 학업외의 배우고 싶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금전적 지원해줄 수 없었다.	0.97
33.	전문적인 입시 및 진로 컨설팅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없었다.	0.99
35.	시설에서 받은 진로교육은 실용적이지 못했다.	0.76
39.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0.84
40.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0.51
43.	시설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대학진학을 권유를 한 것이다.	0.90
1.	내가 성장기를 보낸 시설은 퇴소 후 취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0.37
2.	학교에서 진로 관련 조언을 주는 선생님들은 취업률에만 관심 있었다.	0.74
4.	입시 준비 시 보호종료 아동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	1.08
16.	주변에 진로 관련해서 물어볼 어른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0.51
17.	시설에서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이 많았다.	0.23
18.	퇴소하기 전까지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한정적이였다.	1.01
21.	퇴소하기 전까지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다.	0.65
23.	고등학교 안에서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전공을 바꿀 수 없었다.	0.81
25.	고등학교 진학부터가 퇴소 후의 삶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중학생 때부터 전공을 선택했어야 했다.	0.23
38.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조건을 미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0.43

1차원(X축) 좌표값 기준으로 부적인 방향 끝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다음과 같다.

9.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받게되면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양한 유급 직업체험을 할 수 없었다.	0.54
22.	주변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지 않았다.	0.37
32.	지원받는 시기가 지나서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	0.30
36.	대졸학력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0.43

번호	진술문	좌표값
27.	시설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인한 반항심이 생겨 엇나감으로써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없었다.	-0.28
3.	거주할 곳이 안정적이지 못해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선호하였다.	-0.20
12.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당장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했다.	-0.67
20.	진로에서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0.44
34.	퇴수 후에 다른 진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0.17
41.	직업 조건 및 요건에 관련해 찾아야한다는 조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0.08
7.	시설동기들과의 진로발달 과정이 다르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1.88
1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상대적으로 어린나이로 인해 직장내에서 차별을 받았다.	-1.73
15.	시설친구들과 가까이 사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무리하게 찾았다.	-1.76
28.	진로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하는 부담감이다.	-1.48
1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사회기업에 취직하였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가치관과 비전에 실망하게 되어 그만 두었다.	-1.54
14.	금전적 안정이 우선시되다 보니 일에 대한 성취감을 찾기 힘들었다.	-1.6257
19.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먼저 해주는 어른이 없었다.	-1.05
26.	시설은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할 수 밖에 없던 환경이었기에 퇴소 후인 진로선택후에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	-1.16
29.	퇴소 전에는 뭐든 스스로하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갖기 어려웠다.	-1.44
30.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경험이 적어서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다.	-1.29
37.	나를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1.60
42.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나의 한계로 느껴졌다.	-0.98

1차원(X축)을 정리하면, X축의 정적 방향에는 자립준비청년이 객관적인 정보 부족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부적 방향에서는 관계적 자원 부족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의 내용들이 나타났다. 중간지점에서는 41번 진술문인 '직업 조건 및 요건에 관련해 찾아야한다는 조언을 받아 본 적이 없다'와 같이 객관적인 정보 자원과 관계적 자원을 함께 필요로하는 경험이 나타났다. 즉 X축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탐색시 필요로하는 자원으로서, '객관적인 정보 부족'-'관계적 자원 부족' 차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원(Y축) 좌표값 기준으로 정적인 방향 끝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다음과 같다.

번호	진술문	좌표값
3.	거주할 곳이 안정적이지 못해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선호하였다.	1.66
22.	주변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지 않았다.	1.45
20.	진로에서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1.43
12.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당장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했다.	1.42
9.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받게되면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양한 유급 직업체험을 할 수 없었다.	1.36
7.	시설동기들과의 진로발달 과정이 다르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1.17
11.	직업 정보 획득이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해 해야했지만, 인터넷 서칭을 사용한 정보들은 상세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았다.	0.92
15.	시설친구들과 가까이 사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무리하게 찾았다.	0.91
28.	진로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하는 부담감이다.	0.85
34.	퇴수 후에 다른 진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0.85
32.	지원받는 시기가 지나서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	0.83
8.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정보가 아니였다.	0.66

43.	시설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대학진학을 권유를 한 것이다.	0.61
39.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0.57
24.	부가적인 학업적 지원의 부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0.53
40.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0.51
1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상대적으로 어린나이로 인해 직장내에서 차별을 받았다.	0.48
41.	직업 조건 및 요건에 관련해 찾아야한다는 조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0.43
31.	시설에서 학업외의 배우고 싶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금전적 지원해줄 수 없었다.	0.41
6.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까다롭다.	0.41
36.	대졸학력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0.38
5.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을 몰라 진로 관련 질문을 해보지 못했다.	0.35
33.	전문적인 입시 및 진로 컨설팅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없었다.	0.25
35.	시설에서 받은 진로교육은 실용적이지 못했다.	0.18

2차원(Y축) 좌표값 기준으로 부적인 방향 끝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다음과 같다.

번호	진술문	좌표값
1.	내가 성장기를 보낸 시설은 퇴소 후 취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10.52
27.	시설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인한 반항심이 생겨 엇나감으로써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없었다.	-1.65
16.	주변에 진로 관련해서 물어볼 어른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1.37
17.	시설에서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이 많았다.	-1.34
25.	고등학교 진학부터가 퇴소 후의 삶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중학생 때부터 전공을 선택했어야 했다.	-1.32
2.	학교에서 진로 관련 조언을 주는 선생님들은 취업률에만 관심 있었다.	-1.30
4.	입시 준비 시 보호종료 아동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	-1.29
21.	퇴소하기 전까지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다.	-1.10
18.	퇴소하기 전까지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한정적이였다.	-1.08
26.	시설은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할 수 밖에 없던 환경이었기에 퇴소 후인 진로선택후에 나의 흥미와 적성을	-1.05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	
23.	고등학교 안에서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전공을 바꿀 수 없었다.	-1.02
38.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조건을 미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0.97
30.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경험이 적어서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다.	-0.73
29.	퇴소 전에는 뭐든 스스로하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갖기 어려웠다.	-0.61
42.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나의 한계로 느껴졌다.	-0.61
1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사회기업에 취직하였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가치관과 비전에 실망하게 되어 그만 두었다.	-0.59
19.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먼저 해주는 어른이 없었다.	-0.5
37.	나를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0.47
14.	금전적 안정이 우선시되다 보니 일에 대한 성취감을 찾기 힘들었다.	-0.11

정리하면, Y축의 정적 방향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달되는 시기는 퇴소에 임박한 시기이며, Y축 부적 방향에서는 시설에서 보낸 유년기시절의 보호기간 동안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Y축은 어려움이 발달되는 시간으로 '퇴소 임박 기간 발단'-'보호기간 발단' 차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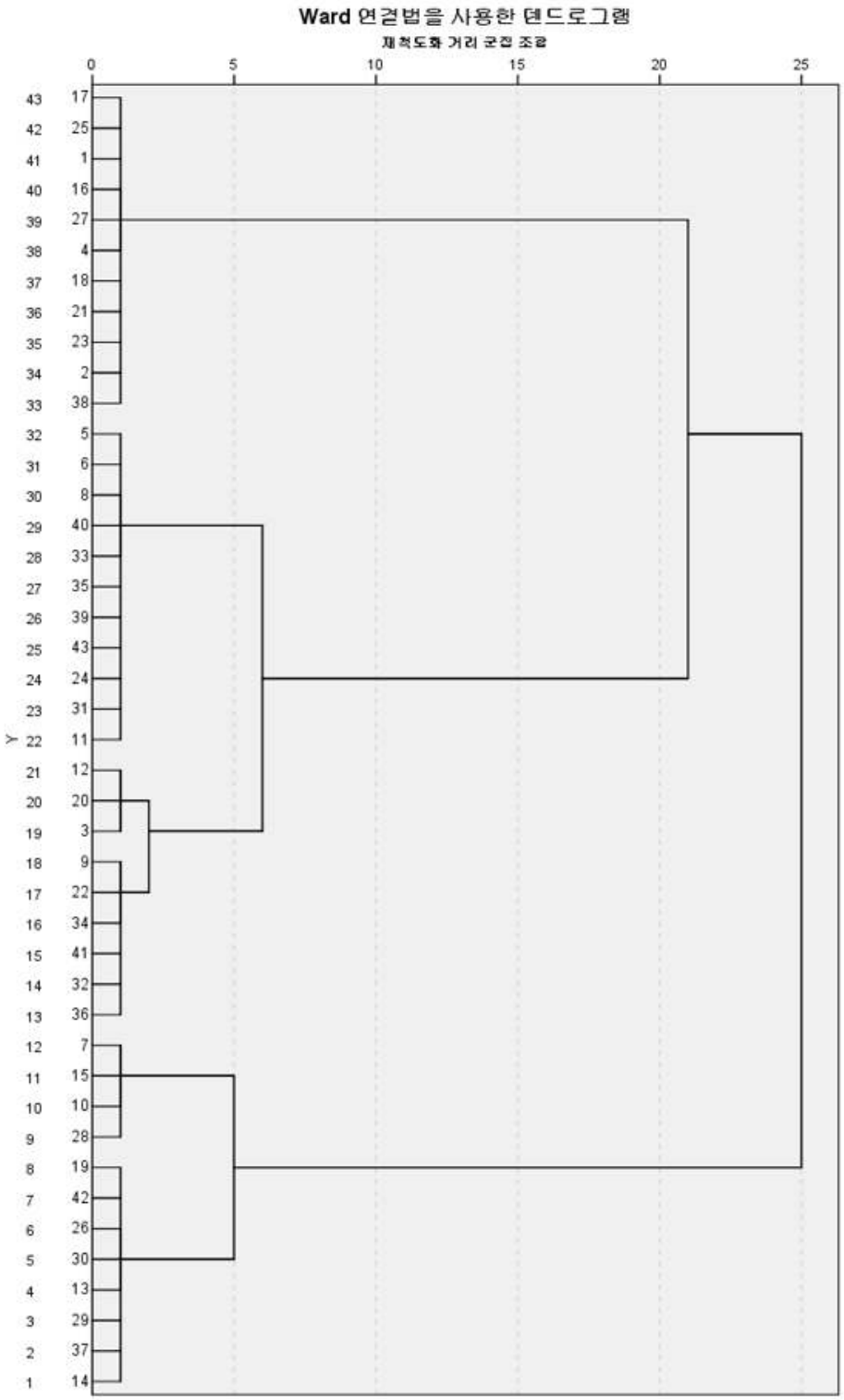
제 3 절 개념도 군집 및 군집별 진술문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후 진로탐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43개의 진술문을 유사성에 따른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가지고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도출된 각 진술문의 2차원 좌표 값을 이용하여 Ward 연결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Kane & Trochim, 2007).

1. 좌표 값을 사용한 군집 분석 결과

개념도 연구에서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며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수학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Paulson et al., 1999; Kane & Trochim, 2007; Trochim & McLinden, 2017).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와 Bedi(2006), Trochim과 McLinden(2017)의 기준을 함께 참고하였다. Bedi(2006)는 군집의 수가 참여자들이 분류한 범주의 개수를 초과하지 않고, 군집으로 나뉜 진술문들이 유사성이 있어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지를 확인할 것과 군집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Trochim과 McLinden(2017)은 군집의 진술문 내용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해석 가능한 진술문으로 묶인 군집의 수를 선택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Ward 연결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고려하였다. Ward 연결법 분석 결과 나타난 [그림 4]의 덴드로그램를 확인한 결과, 2, 3, 4, 5, 8개의 군집 수가 제안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대표 진술문을 최소 3개에서 최대 23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유사성 분류 결과를 함께 참고하였다 (M=16.00, SD=5.00). 셋째, 각 군집의 진술문이 유사한 진술문으로 나뉘었는지, 군집 간의 진술문이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면서 해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문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본 연구에서는 Ward 연결법으로 도출된 5개의 군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4] 군집분석(Ward 방법) 덴드로그램

군집분석의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중심값 연결법과 중위수 연결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Ward 연결법 결과와 비교하면서 군집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중심값 연결법과 중위수 연결법의 덴드로그램은 <부록 2, 3>에 제시하였다.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중심값 연결법과 평균 연결법은 모두 동일한 군집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군집 안의 진술문들을 확인하였을 때 연구자는 Ward 연결법 분류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Ward 연결법에서 1차적 군집수는 6개로 분석되었으나, 진술문 20, 12, 3의 군집과 진술문 9, 22, 34, 41, 32, 36의 내용들이 동질적이라고 판단되어 합의팀과 의논 뒤 합리적으로 군집수를 5개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단계를 걸쳐서 산출된 군집 및 군집별 진술문은 아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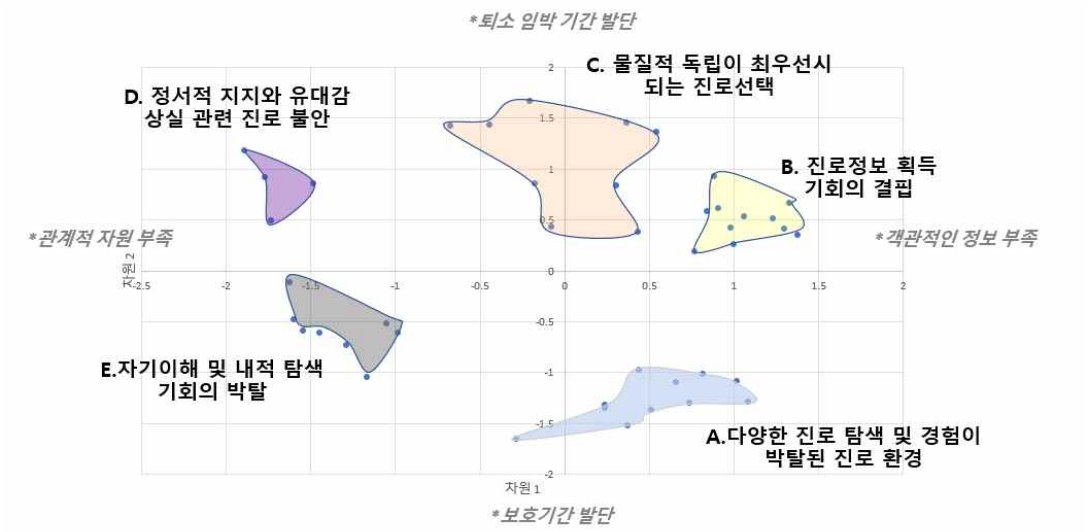
<표 6> 좌표값으로 산출된 군집 및 군집별 진술문

자립준비청년의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 군집별 진술문	
군집 A	다양성에 있어서 경직된 진로 환경 (11 진술문)
1	내가 성장기를 보낸 시설은 퇴소 후 취업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2	학교에서 진로 관련 조언을 주는 선생님들은 취업률에만 관심 있었다.
4	입시 준비 시 보호종료 아동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
16	주변에 진로 관련해서 물어볼 어른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17	시설에서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이 많았다.
18	퇴소하기 전까지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한정적이였다.
21	퇴소하기 전까지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다.
23	고등학교 안에서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전공을 바꿀 수 없었다.
25	고등학교 진학부터가 퇴소 후의 삶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중학생 때부터 전공을 선택했어야 했다.
27	시설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인한 반항심이 생겨 엇나감으로써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없었다.

38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조건을 미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군집 B	진로정보 획득 기회의 결핍 (11 진술문)
5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을 몰라 진로 관련 질문을 해보지 못했다.
6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까다롭다.
8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정보가 아니였다.
11	직업 정보 획득이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해 해야했지만, 인터넷 서칭을 사용한 정보들은 상세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았다.
24	부가적인 학업적 지원의 부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31	시설에서 학업외의 배우고 싶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금전적 지원해줄 수 없었다.
33	전문적인 입시 및 진로 컨설팅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없었다.
35	시설에서 받은 진로교육은 실용적이지 못했다.
39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40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43	시설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대학진학을 권유를 한 것이다.
군집 C	안전이 우선시되는 상황으로 인한 진로선택의 제약 (9 진술문)
3	거주할 곳이 안정적이지 못해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선호하였다.
9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받게되면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양한 유급 직업체험을 할 수 없었다.
12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당장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했다.
20	진로에서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22	주변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지 않았다.
32	지원받는 시기가 지나서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
34	퇴수 후에 다른 진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36	대졸학력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41	직업 조건 및 요건에 관련해 찾아야한다는 조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군집 D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상실로 인한 제약 (4 진술문)
7	시설동기들과의 진로발달 과정이 다르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1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상대적으로 어린나이로 인해 직장내에서 차별을 받았다.
15	시설친구들과 가까이 사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무리하게 찾았다.
28	진로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하는 부담감이다.
군집 E	자기이해 및 내적 탐색 기회의 박탈 (8 진술문)
1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사회기업에 취직하였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가치관과 비전에 실망하게 되어 그만 두었다.
14	금전적 안정이 우선시되다 보니 일에 대한 성취감을 찾기 힘들었다.
19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먼저 해주는 어른이 없었다.
26	시설은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할 수 밖에 없던 환경이었기에 퇴소 후인 진로선택 후에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
29	퇴소 전에는 뭐든 스스로하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갖기 어려웠다.
30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경험이 적어서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다.
37	나를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42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나의 한계로 느껴졌다.

도출된 5개의 군집과 차원을 표상한 개념도 또한 [그림 5]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5] 자립준비청년들이 지각하는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제 4 절 군집별 대표진술문

1. 군집 A: 다양한 진로 탐색 및 경험이 박탈된 환경

군집 A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협소한 진로 지원 및 조언과 같은 환경적으로 경직된 내용을 나타내는 대표 진술문들로 구성이 되었다. 해당 군집에는 총 11개의 대표진술문들이 있다 (진술문 1, 2, 4, 16, 17, 18, 21, 23, 25, 27, 38번). 이들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던 제약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해당 군집은 Y축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Y축이 부적좌표가 낮은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진술문	x-	Y-
1	내가 성장기를 보낸 시설은 퇴소 후 취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0.37	-10.5
2	학교에서 진로 관련 조언을 주는 선생님들은	0.74	-1.3

	취업률에만 관심 있었다.		
4	입시 준비 시 보호종료 아동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	1.09	-1.29
16	주변에 진로 관련해서 물어볼 어른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0.51	-1.37
17	시설에서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이 많았다.	0.24	-1.35
18	퇴소하기 전까지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한정적이였다.	1.02	-1.09
21	퇴소하기 전까지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다.	0.66	-1.1
23	고등학교 안에서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전공을 바꿀 수 없었다.	0.82	-1.02
25	고등학교 진학부터가 퇴소 후의 삶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중학생 때부터 전공을 선택했어야 했다.	0.24	-1.32
27	시설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인한 반항심이 생겨 엇나감으로써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없었다.	-0.3	-1.65
38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조건을 미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0.44	-0.97

대표적인 진술문 각 특성 통해 군집을 확인 할 수 있다.

진술문 1번: 내가 성장기를 보낸 시설은 퇴소 후 취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일단은 중학교 때 시설 어른들이 어차피 너네는 퇴사하자마자 바로 돈 벌어야 된다 취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다 거의 다 그때 특성화고를 많이 보낼 때였거든요."

대표 진술문 1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인 시설에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퇴소 후 다양한 진로를 고려되어지는 것이 아닌 취업으로만 향해져 있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진술문 27번: 시설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인한 반항심이 생겨 엇나감으로써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없었다.

"시설생활이 제약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인데.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항상 반항 시기에 놓인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어쨌든 거부감이 들고 엇나가고하기 쉬웠죠."

대표 진술문 27번은 시설에서는 많은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금시간 등 예외되는 경우 없이 모두 같은 제약을 받게되는 현실을 대표하는 진술문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제약으로 인해 보호아동들은 거부감과 반항심으로 진로발달과 선택의 발달을 늦추게 된다. 심리적 자원, 그 중 안정된 애착은 심리적 독립을 촉진함으로써 진로발달과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수임, 김창대, 2009). 해당 대표 진술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기간동안 충분한 진로 발달과 선택을 위한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것이 언급되었다.

진술문 16번: 주변에 진로 관련해서 물어볼 어른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진짜 그런 것들은 약간 어른들의 조언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친구들끼리 가장 먼저 이야기나누는데, 친구들보다는 먼저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표 진술문 16번은 진로 관련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했으며, 환경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른의 제한으로 적극적인 질문과 코칭을 받지 못한 내용을 나타낸다.

진술문 17번: 시설에서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이 많았다.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또는 뭘 고민하고 이런 걸... 진짜 들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애가 그냥 빨리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먼저인 느낌. 진짜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진로 고민을 말하면 늘 그냥 빨리 자립해야지- 돈 벌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지- 했었죠."

대표 진술문 17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를 하기 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본인들이 보호받는 기관인 시설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이 있는 분위기였음이

언급되었다.

진술문 25번: 고등학교 진학부터가 퇴소 후의 삶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중학생 때부터 전공을 선택했어야 했다.

“특성화고 안에서 전공을 바꿀 수 가 없었죠. 전공과 적성에 안맞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남아있어야했어요.. 특성화고도 사실 시설에서 인문계갈래 특성화고갈래하고 그냥 툭 던져놓고. 우리는 그래도 돈을 빨리 벌 수 있는거면 특성화고가자하고- 그냥 쉽게 생각했죠.”

대표 진술문 25번은 국내 자립준비청년들은 고등학교 진학부터가 퇴소 후의 삶을 고려한 선택이였기 때문에 보호종료후 부터가 아닌 보호중인 시기부터 진로선택을 혼자 짊어져야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진술문 2번: 학교에서 진로 관련 조언을 주는 선생님들은 취업률에만 관심 있었다.

“학교에서는 그냥 진짜 면접 잘 보는 방법 이런 것만 알려주지 진짜 회사에 관한 일에 대한 이런 거는 아예 없었어요. 학교는 그냥 약간 진짜 취업률 때문에 아무 회사 막 잡아가지고 그냥 면접 넣고 이러거든요. ”

대표 진술문 2번은 시설에서 뿐만이 아닌 학교에서도 진로정보에 관련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특성화고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취업을 바로하기 위해 진학을 하였지만, 정학 학교에서도 일과 진로에 관련해서 깊은 탐색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담아져 있는 진술문이다.

진술문 4번: 입시 준비 시 보호종료 아동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

“제가 약간 지금 와서 조금 후회되는 게 원래 제가 어쨌든 서울에

있는 학교를 어쨌든 갈 수 있는 성적이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저한테 유리한 전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대표 진술문 4번은 학교를 포함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확하고 알맞은 입시 정보를 받지 못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특히 보호종료 아동 특별전형이라든지, 입시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안내해주지 못한 어려움들이 포함되었다.

진술문 21번: 퇴소하기 전까지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다.

“아는 직업들이 별로 없으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야 유튜브나 이런걸로 다양한 직업들이 있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교과서나 주변에 있는 직업들만 알았죠. 그러니까 굳이 대학에 가서 직업을 더 알아봐야지 생각도 못했던 거 같아요.”

대표 진술문 21번은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경험의 결핍과 협소해진 진로 탐색 시야를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로 배우거나 진로교육을 받을 때 직업의 다양성을 교육받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흥미와 적성을 물어보는 방식의 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포함되었다.

진술문 18번: 퇴소하기 전까지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한정적이였다.

“늘 보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뭐 이런식이니까. 그래서 보통 다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죠. 내가 겪어본 환경이고 어떤일을 하는지 아니까.”

대표 진술문 18번은 실제로 접해보고 간접경험을 한 직업군이 한정적이였을을 언급한다. 이러한 한정적인 경험은 보호 아동들로 하여금 퇴소를 한 후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직업군이 그 한정적인 경험에 치우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을 진학할 때도 사회복지학과를 많이 선택한다는 등의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진술문 23번: 고등학교 안에서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전공을 바꿀 수 없었다.

"전공을 들어갔는데 저한테 정말 안맞았어요. 너무 싫어서 1학년때 선생님한테 바꾸고 싶다 했는데. 못바꾼대요. 그래서 그냥 졸업만한다-하고 버텼죠."

대표 진술문 23번은 이른 전공 선택에도 불구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도 전공을 유지해야하는 환경을 보여주는 내용의 진술문이다. 이로 인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진로전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경직되었음이 언급된다.

진술문 38번: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조건을 미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자립준비청년도 엄청 다양해서 이게 시설이냐 또는 가정외보호냐 다른데. 저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18세까지 다 못채우고 나온거에요. 그걸 안알려준거죠. *달 (1년이내) 남았었는데.. 그 기간 못채우면 지원을 못받는다는 걸."

대표 진술문 38번은 다양한 지원들에 대한 조건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은 추후 5년의 후속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퇴소라는 조건이 있음에도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 포함되었다.

2. 군집 B: 진로 정보 획득 기회의 결핍

군집 B는 유용하거나 필요한 진로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기회조차를 받고자 시도를 해주지 못한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군집에서는 총 11개의 대표진술문들이 있다 (진술문 5, 6, 8, 11, 24, 31, 33, 35, 39, 40, 43번) 해당 군집은 Y축의 특성을 참고함에 Y축의 정적좌표가 높

은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진술문	x-	Y-
11	직업 정보 획득이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해 해야했지만, 인터넷 서칭을 사용한 정보들은 상세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았다.	0.89	0.93
8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정보가 아니였다.	1.33	0.66
43	시설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대학진학을 권유를 한 것이다.	0.91	0.62
39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0.84	0.58
24	부가적인 학업적 지원의 부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1.06	0.53
40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1.23	0.51
31	시설에서 학업외의 배우고 싶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금전적 지원해줄 수 없었다.	0.98	0.42
6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까다롭다.	1.3	0.41
5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을 몰라 진로 관련 질문을 해보지 못했다.	1.38	0.35
33	전문적인 입시 및 진로 컨설팅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없었다.	1	0.26
35	시설에서 받은 진로교육은 실용적이지 못했다.	0.77	0.19

진술문 35번: 시설에서 받은 진로교육은 실용적이지 못했다.

> "약간 사무직 이런 것보다는 현장 서비스직 약간 그런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건 절대 이전에는 모르는거죠. 시설내에서 진로교육이 와도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간접적이라도 들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던 거 같아요."

대표 진술문 35번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원체계에가 있음에도 그 양질이 충족되지 못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설에서 필수 진로 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억이 나지 않는 교육이였다던지, 영상으로 보는 강의식 교육이였다던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진술문 33번: 전문적인 입시 및 진로 컨설팅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없었다.

“입시 또는 진로 관련 컨설팅을 시설이나 학교에서 받아봤자- 그냥 너의 꿈은 뭐니? 이런식. 보통은 혼자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표 진술문 33번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전문적인 입시 및 진로상담 또는 컨선팅을 제공받지 못했음이 언급되었다. 또한 이를 요구하는 시도도 드물었으며, 보통 혼자 고민하는 것을 선택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진술문 5번: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을 몰라 진로 관련 질문을 해보지 못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고 막 이것저것 소개해주셨었어요. 그중에.. 그- 저는 처음에 상담 프로그램 저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잘 지내고 있었고... 저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지원금이 남았다.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대표 진술문 5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전담요원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립전담요원의 역할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뒤늦게 알게되는 등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졌다.

진술문 6번: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까다롭다.

“이게 월마다 지원받는 것도 조건이 있는데. 저는 해당되지 못한거죠. 가족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게 한계가 있고. 그 부가적인 서류들이 있는데.. 복잡해서 하다가 포기하고.”

대표 진술문 6번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내용들의 어려움을 나타낸 문장이다.

진술문 31번: 시설에서 학업 외의 배우고 싶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금전적 지원해줄 수 없었다.

"그때 승무원 학원도 원래 제가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학원비가 이제 1년에 150만 원인 거예요. 이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대표 진술문 31번을 통해 학업외의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없는 환경이였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체능과 같은 학업 외 다른 진로를 고려해보지 못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술문 40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다들 아는 애들끼지 장학금 정보를 알고 그런거에요. 그걸 한참을 몰랐다가 한 커뮤니티를 알게됐어요. 거기에 그 어떤 복지재단이나 어떤 데서 운영하시는건데. 아마 거기 직원분 한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은 정보를 다 얻어요. 다 정리해서 올려주거든요."

대표 진술문 40번은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가 현재 활성화가 되어있으며,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찾으면 커뮤니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직접 찾아보거나 소개를 받지 못하면 해당 커뮤니티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진술문 24번: 부가적인 학업적 지원의 부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미 선행을 다한 애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하고 깔끔하게 포기했죠."

대표 진술문 24번은 성적에 상관없이 부가적인 학업적 지원이 부족하여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음을 나타낸다. 시설에서는 모두에게 추가적인 학업적 지원을 상위 성적 학생들에게만 제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학업적 지원이 거의 없던 현상을 언급했다.

진술문 39번: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국가 지원은 생각보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게 있었어? 그럼 그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았을텐데"

대표 진술문 39번은 국가지원을 한번에 정리되어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 언급되었다.

진술문 43번: 시설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대학진학을 권유를 한 것이다.

"보통 시설내에서는 공부잘하는 애들만 과외 우선적으로 시켜주고. 나머지는 빨리 돈을 벌 수 있게하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은 인문계 쪽 가는 친구들이 가는데.. 인문계로 애초에 많이 추천 안하죠."

대표 진술문 43번은 시설 내에서 소수의 공부 잘하는 보호 아동들에게만 편애와 지원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내용으로는 상위 성적의 아이들만 추가적인 공부를 지원받거나 인문계를 추천해준 사례들이 있다.

진술문 8번: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정보가 아니였다.

"생각보다 기업별로 지원해주는게 많더라고요. 프로그램도 훨씬 다양하고. 미리 알고 해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대표 진술문 8번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정

보가 아니였다가 언급되었다. 장학금이나 프로그램들은 받아본 소수의 집단들끼리만 내용이 공유되고 있는 현상이 언급되었다.

진술문 11번: 직업 정보 획득이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해 해야했지만, 인터넷 서칭을 사용한 정보들은 상세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았다.

"보통 그 인터넷으로 했고. 다 그냥 제가 스스로 굳이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들이 지난 거도 많고, 생각보다 정확한 걸 찾는 것도 어려우니까."

대표 진술문 11번은 혼자서 인터넷을 통한 직업정보 획득에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구하고자하지만 진로에 관련해서는 정보들이 상세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아 늘 모호하게 직업에 대해 이해했다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었다.

3. 군집 C: 물질적 독립이 최우선시 되는 진로 선택

군집 C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철저한 독립이란 변화로 인해 안전이 우선시되다보니 다른 요인들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해당 군집에서는 총 9개의 대표진술문들이 있다 (진술문 3, 9, 12, 20, 22, 32, 34, 36, 41번). 해당 군집은 Y축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Y축의 정적좌표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진술문	x-	Y-
9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받게되면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양한 유급 직업체험을 할 수 없었다.	0.54	1.36
36	대졸학력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0.43	0.38
22	주변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지 않았다.	0.37	1.45
32	지원받는 시기가 지나서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	0.3	0.83

41	직업 조건 및 요건에 관련해 찾아야한다는 조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0.1	0.43
34	퇴수 후에 다른 진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0.2	0.85
3	거주할 곳이 안정적이지 못해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선호하였다.	-0.2	1.67
20	진로에서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0.4	1.43
12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당장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했다.	-0.7	1.42

진술문 12번: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당장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했다.

"대학교 3학년부터 하고싶은거 준비하고 싶었는데, 대학 졸업하고부터는 이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 학원비도 그렇고 이제 돈을 약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취업한 거긴 해요"

대표 진술문 12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하고 싶은 진로가 있더라도 미루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성취하고 싶거나 경험하고 싶은 진로를 보류하는 상황을 보이게 된다.

진술문 20번: 진로에서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자꾸 주변에서 그 일은 열악하다고 말하니까 망설여진 것 같아요. 아무리 부정적이게 말해도 제가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확신을 더 가지면 좋지 않았을까. 스스로도 안전한 보장된 길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대표 진술문 20번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진로의 전환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며, 진로 선택의 실패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 이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인이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흥미가 있는 일을 찾게 되는 것보다 안정이 보장되는 진로 쪽으로 기울게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진술문 36번: 대졸학력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대기업 이런 데는 대졸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어쨌든 더 넓어지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데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왜 그걸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대표 진술문 36번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학력의 필요성을 현실성있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로는 추후에 승진을 위해서는 학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지원 자체에 학력이 필수로 요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어려움이 있었다.

진술문 41번: 직업 조건 및 요건에 관련해 찾아야한다는 조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서 관광고등학교에 지원했는데, 키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걸 몰라서 바꾸게 되었죠. 애초에 뭐가 필요한지 물어볼 생각을 못했던 거죠”

대표 진술문 41번은 직업을 탐색할 시 지업의 조건과 요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을 주변에서 모델링이 되어주거나 조언해준 사람이 없었던 현상을 나타낸다.

진술문 32번: 지원받는 시기가 지나서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

“살짝 후회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대학을 가자니 지원을 받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고”

대표 진술문 32번은 진로전환의 리스크를 혼자 감당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시도하기를 망설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진술문 34번: 퇴소 후에 다른 진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늘 결국 '뭘하든 너의 인생이니 선택해라'. 저희는 뭔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대표 진술문 34번은 진로 선택 뿐만이 아닌 진로 전환도 자유롭지 못하는 심적 그리고 물리적 부담감을 나타낸다.

진술문 9번: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받게되면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양한 유급 직업체험을 할 수 없었다.

“이게 금액이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저만해도 월 30정도. 근데 그걸로 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법쓰면서 어떻게든 구하는거죠. 전공책이라도 구매할려면 필요하니까”

대표 진술문 9번은 유급 직업체험을 할 수 없는 지원의 허점을 언급한다. 지원을 받게되면 추가적인 유급 근무를 원하는 만큼 한다던지,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던지와 같은 제한이 있어서 자유롭게 아르바이트와 같은 직업체험을 할 수 없는 사례들을 포함한다.

진술문 22번: 주변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지 않았다.

“네가 조금 헛된 꿈을 갖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표 진술문 22번은 주변에서 당장의 성과가 없을 수 일이나 도전적인 직업을 선택할 시 지지적이지 못하는 환경을 보여준다. 도전적이거나 장시간 걸리는 직업에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 다들 말

리거나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감과 정서적 지지가 부족했음을 나타낸다.

진술문 3번: 거주할 곳이 안정적이지 못해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선호하였다.

"대학을 들어가도 기숙사비를 내는 것이 걱정됐고. 시설에서 약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희 있을 때는 약간 본의 아니게 좀 공장으로 밀어넣으려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집을 구해야 되는데 기숙사도 있어 해결되니까"

대표 진술문 3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것이 생활의 안정과 숙식인 것을 보여준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숙사 등의 숙식을 지원하는 회사를 선호하는 것이 나타난다.

4. 군집 D: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상실 관련 진로 불안

군집 D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인한 제약을 보여주는데, 가장 크게 유대감과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시설 동기들로 보여진다. 해당 군집에서는 총 4개의 대표진술문들이 있다(진술문 7, 10, 15, 28번). 해당 군집은 X축의 특성을 고려함에 따라 X축의 부적좌표가 낮은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진술문	x-	Y-
7	시설동기들과의 진로발달 과정이 다르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1.9	1.18
1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상대적으로 어린나이로 인해 직장내에서 차별을 받았다.	-1.7	0.49
15	시설친구들과 가까이 사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무리하게 찾았다.	-1.8	0.91
28	진로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하는 부담감이다.	-1.5	0.85

진술문 15번: 시설친구들과 가까이 사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무리하게 찾았다.

“저희들끼리 그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다들 시설근처로 돌아와서 살게된다... 아무래도 친구들도 다 그 근처에 있고하다보니까. 그래서 일을 다시 찾을 때 그 지역 근처면 좋겠다하고 찾아봤어요. 물론 직장이랑 멀긴하지만 지금 사는 지역은 만족해요”

대표 진술문 15번은 시설 동기들과의 가까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 동기들과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하며, 직장이 멀더라도 이사를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러 근처 회사로 이직을하거나하는 사례들이 포함되어있다.

진술문 10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상대적으로 어린나이로 인해 직장내에서 차별을 받았다.

“사실 직장에서 보게되면 엄청 어릴 때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더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래서 어린 애들을 안된다’이러고. 더 차갑게 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대표 진술문 10번은 어린나이로 받게되는 차별들이 많아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별을 공감해주는 대상 또한 대다수 시설 동기들로 한정되어서 근무지 안에서 위로를 받기 보다는 퇴근 후 동기들과 위로를 주고 받는 이야기들도 포함되었다.

진술문 28번: 진로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하는 부담감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너 퇴소 얼마 안남았으니까 어떻게 살래- 막 이러니까 선택해본적 없는데. 이제 갑자기 나의 몫이라고 해서. 조금

조언을 주거나 상의할 사람 어른들은 없고 다 자기 선택에 맡겼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대표 진술문 28번은 급작스러운 진로 선택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는 환경과 그 선택을 온전히 혼자 책임져야한다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진로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보다 퇴소 직전인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부터 진학, 취업, 주거 등과 관련한 고민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상정 외, 2019). 즉 퇴소 임박시의 급작스럽게 자립준비와 함께 진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술문 7번: 시설 동기들과의 진로발달 과정이 다르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혼자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쩌면 가장 의지하게 되는게 시설 동기들인거죠. 근데 이게 기수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데, 저희 동기들은 일을 안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일해야지-이런 말 자주하고. 그래서 마음도 급해지고”

대표 진술문 7번은 시설 동기들과 다른 진로 상태일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표현되었다. 예로는, 동기들끼리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기수마다 휴직 중인 기수, 구직 중인 기수, 재직 중인 기수 등으로 보여지거나, 모두가 재직 중이면 쉬고 싶어서 휴직했지만 불안해져서 다시 일을 찾아보게 된다거나, 구직 중에 서로 의지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있다.

5. 군집 E: 자기이해 및 내적 탐색 기회의 박탈

군집 E는 해당 군집에서는 시설에서의 보호기간동안 학습되지 못한 자기이해 및 내적자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나타낸다. 자기이해 부족 또는

개인특성 문제와 같은 심리적 제약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우예영, 김동일, 2020). 해당 군집에는 총 8개의 대표진술문들이 있다(진술문 13, 14, 19, 26, 29, 30, 37, 42번). 해당 군집은 X축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X축의 부적좌표가 낮은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진술문	x-	Y-
1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사회기업에 취직하였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가치관과 비전에 실망하게 되어 그만 두었다.	-1.5	-0.59
14	금전적 안정이 우선시되다 보니 일에 대한 성취감을 찾기 힘들었다.	-1.6	-0.12
19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먼저 해주는 어른이 없었다.	-1.1	-0.52
26	시설은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할 수 밖에 없던 환경이었기에 퇴소 후인 진로선택후에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	-1.2	-1.05
29	퇴소 전에는 뭐든 스스로하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갖기 어려웠다.	-1.5	-0.62
30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경험이 적어서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다.	-1.3	-0.73
37	나를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1.6	-0.48
42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나의 한계로 느껴졌다.	-1	-0.62

진술문 26번: 시설은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할 수 밖에 없던 환경이었기에 퇴소 후인 진로선택후에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

> "시설에서는 튀지 않고 수동적인 애들이 잘 적응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소할때까지 내가 어떤걸 좋아하는지 잘 몰랐죠. 그래서 퇴소하고 성격이 바뀐 애들이 엄청 많아요. 가지고 있던 성격들이 그제서야 나온거죠."

대표 진술문 26번은 시설의 환경은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환경이였음이 언급되었으며, 시설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과 흥미

등을 묻히게 된다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퇴소 후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의 성격 뿐만이 아닌 흥미와 적성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진술문 30번: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경험이 적어서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다.

"시설에서도 인서울이 무슨 개나 소나 다 가는 데냐. 그래서 늘 하고싶은거 생각하는거 말하기 싫어했는데. 회사 다니고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연봉협상할때도 그렇고."

대표 진술문 30번은 나의 명료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려는 경험들이 다 부정되어 수동적이게 된 본인의 성향에 대한 답답함들이 표현되었다.

진술문 29번: 퇴소 전에는 뭐든 스스로하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갖기 어려웠다.

"늘 정해준 대로만 지냈으니까. 주체적이지 못했었죠"

대표 진술문 29번은 시설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의견을 용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사항으로 늘 만족을 했어야 했던 경험이 나타난다.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다가 퇴소를 한뒤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주체성을 가지며 좋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진술문 42번: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나의 한계로 느껴졌다.

"뭔가 여행도 어릴 때부터 많이 한 애들과의 생각의 방식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죠. 난 저 창의력과 활동적인 모습을 못이길 수도 있겠다"

대표 진술문 42번은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다른 일반 가정에서 자란 타인들의 경험과 생각의 방식들을 보며 경험하게 되는 박탈감과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예시로는, 여행을 많이 해보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이 여행을 많이 다녀본 일반 가정 친구들과 경쟁했을 때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진술문 13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사회기업에 취직하였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가치관과 비전에 실망하게 되어 그만 두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저는 그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일할 줄 알았는데, 아니였어요. 그냥 진짜 미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너무 어느 순간 너무 다니기 싫었어요."

대표 진술문 13번은 기대했던 가치관과 다른 직업 현장에 실망하여 그만두게 된 경험들을 포함하고 있다.

진술문 19번: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먼저 해주는 어른이 없었다.

"나침반이 되어주는 어른이 없는 느낌. 딱히 롤모델로 삼을 만큼 저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표 진술문 19번은 나라는 존재와 나의 삶에 먼저 관심을 보이고 조언을 해주고자하는 어른이 없었다는 것에서 자기 이해가 더 발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준다.

진술문 37번: 나를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막연한 '넌 잘하고 있어'가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듣지 못할 때 외롭고 힘들죠"

대표 진술문 37번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자기 기대감이 높아지기 어려운 경험이 포함되었다.

진술문 14번: 금전적 안정이 우선시되다 보니 일에 대한 성취감을 찾기 힘들었다.

"돈을 어느정도 안정적이게 벌고 나니까 이제 성취감이 저한테 떨어졌던 것 같아요"

대표 진술문 14번은 금전적인 안정을 우선시하고 자리가 잡히고 난 뒤에 일에 대한 동기부여나 성취감을 찾기 힘든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뒤늦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도전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일을 지속해야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 5 절 진로탐색의 어려움 중요도

9명의 참여자들에게 유사평정을 진행 후 43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진술문에 대해 5점 Likert 척도 (1=중요하지 않던 어려움이다, 5=영향이 컸던 중요한 어려움이다)로 중요도를 생각하여 평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7>을 통해 진술문 별 중요도는 내림차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7> 자립준비청년들이 인식하는 진로탐색에서의 어려움 진술문 중요도

번호	대표 진술문	중요도 *M(SD)*
18	퇴소하기 전까지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한정적이였다.	4.56(0.53)
12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당장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했다.	4.44(1.01)

26	시설은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할 수 밖에 없던 환경이었기에 퇴소 후인 진로선택후에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	4.44(1.01)
30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경험이 적어서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다.	4.44(1.01)
17	시설에서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이 많았다.	4.33(1.00)
21	퇴소하기 전까지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다.	4.22(1.09)
22	주변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지 않았다.	4.22(0.97)
1	내가 성장기를 보낸 시설은 퇴소 후 취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4.11(1.36)
42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나의 한계로 느껴졌다.	4.11(1.27)
19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먼저 해주는 어른이 없었다.	4.00(1.12)
2	학교에서 진로 관련 조언을 주는 선생님들은 취업률에만 관심 있었다.	3.89(1.05)
3	거주할 곳이 안정적이지 못해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선호하였다.	3.78(1.09)
28	진로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하는 부담감이다.	3.78(0.97)
31	시설에서 학업외의 배우고 싶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금전적 지원해줄 수 없었다.	3.78(1.30)
35	시설에서 받은 진로교육은 실용적이지 못했다.	3.78(1.20)
8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정보가 아니였다.	3.67(0.71)
14	금전적 안정이 우선시되다 보니 일에 대한 성취감을 찾기 힘들었다.	3.67(1.12)
16	주변에 진로 관련해서 물어볼 어른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3.67(1.66)
20	진로에서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3.67(1.32)
36	대졸학력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3.67(1.12)
43	시설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대학진학을 권유를 한 것이다.	3.67(1.32)
29	퇴소 전에는 뭐든 스스로하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갖기 어려웠다.	3.56(1.01)
33	전문적인 입시 및 진로 컨설팅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없었다.	3.56(1.51)
39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3.44(1.24)
23	고등학교 안에서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전공을 바꿀 수 없었다.	3.33(1.50)
25	고등학교 진학부터가 퇴소 후의 삶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중학생 때부터 전공을 선택했어야 했다.	3.33(1.66)
32	지원받는 시기가 지나서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	3.33(1.00)
34	퇴수 후에 다른 진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본	3.33(0.87)

	적이 없다.	
37	나를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3.22(0.83)
5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을 몰라 진로 관련 질문을 해보지 못했다.	3.11(0.78)
38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조건을 미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3.00(1.00)
40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3.00(1.73)
4	입시 준비 시 보호종료 아동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	2.78(0.67)
11	직업 정보 획득이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해 해야했지만, 인터넷 서칭을 사용한 정보들은 상세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았다.	2.78(1.72)
24	부가적인 학업적 지원의 부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2.78(1.20)
15	시설친구들과 가까이 사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무리하게 찾았다.	2.67(1.58)
27	시설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인한 반항심이 생겨 엇나감으로써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없었다.	2.67(1.12)
6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까다롭다.	2.56(1.74)
41	직업 조건 및 요건에 관련해 찾아야한다는 조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2.56(1.01)
9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받게되면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양한 유급 직업체험을 할 수 없었다.	2.33(1.00)
1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상대적으로 어린나이로 인해 직장내에서 차별을 받았다.	2.11(1.45)
7	시설동기들과의 진로발달 과정이 다르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2.00(0.87)
1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사회기업에 취직하였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가치관과 비전에 실망하게 되어 그만 두었다.	1.33(0.71)

‘보통 (3점)’ 이상의 중요도는 43개의 최종 진술문 중 32개의 진술문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된 진술문은 진술문 18번 ‘퇴소하기 전까지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한정적이였다’으로 확인되었다. 중요도 평균은 4.56이었다. 이는 성장기 시절에 접하는 직업군의 다양성이 추후 진로 탐색과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진 진술문들은 진술문 12, 26, 30번으로 모두 평균 4.44이었다. 그중 진술문 26번 ‘시설은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할 수 밖에 없던 환경이었기에 퇴소 후인 진로선택후에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와 진술문 30번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경험이 적어서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다’를 통해 시설에서 개성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에서 주는 진로 선택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진술문 12번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당장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했다’을 통해 진로를 통해 자아개발을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43개의 진술문 중 본 2점 미만인 진술문은 진술문 13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사회기업에 취직하였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가치관과 비전에 실망하게 되어 그만 두었다’으로 유일하였다. 해당 진술문의 중요도는 평균 1.33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인식하는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 대한 개념적 구조를 확인하고 그 어려움들의 중요도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시설에서 보호종료가 된 자립준비청년 9명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한 결과, 진로탐색에서의 어려움은 43개의 핵심문장들이 파악되었다. 해당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탐색시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한 2개의 차원과 5개의 군집을 파악하였다. 5개의 군집은 '관계적 자원의 부족~객관적 정보의 부족 차원'인 어려움 발달시기 축과 '퇴소 임박 기간에 발단~보호기간에 발단 차원'로 확인되는 필요 자원 축에서 Ⓐ다양한 진로 탐색 및 경험이 박탈된 진로 환경, Ⓑ진로정보 획득 기회의 결핍, Ⓒ물질적 독립이 최우선시 되는 진로 선택,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상실 관련 진로 불안, 그리고 Ⓔ자기이해 및 내적 탐색 기회의 박탈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보호종료의 기간 또는 퇴소 임박 기간에서만 촉발되는 것이 아니며, 관계적 자원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인 정보도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자립준비청년들이 인식하는 진로탐색에서의 어려움의 중요도를 평정한 결과를 확인하면 중요도 평균은 3.41(SD=1.24)이다. 총 43개의 대표 진술문 중 24개의 많은 진술문들이 평균보다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그 중 대다수는 Ⓐ다양한 진로 탐색 및 경험이 박탈된 진로 환경, Ⓒ물질적 독립이 최우선시 되는 진로 선택, 그리고 Ⓔ자기이해 및 내적 탐색 기회의 박탈 군집의 진술문들로 확인 되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분명 진로와 자립에 있어 중요한 어려움이지만 그와 함께 보호기간과 보호기간 직후에 이루어지지 못한 적절한 진로 발달에 대한 교육, 양육 및 상담 또한 분명히 이들에게 큰

결핍이였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 뿐만이 아닌 이들의 진로발달을 고려해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할 수 있는 연구과 환경이 중요한 과제임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싶은 자료들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인식되어지는 진로탐색에서의 어려움을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퇴소 후 장기적인 경험에서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의 요인과 맥락을 분석함으로서 이전 연구들에서 확인되지 못한 부분들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장기적인 건강한 진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선책을 제공한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제약은 취업과 진학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으로 표면적인 부분만 확인하였다. 하지만, 해당 어려움에 대한 심화적인 연구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금전적인 또는 거시적인 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닌 관계적 또는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선된 보호요건들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로 및 취업등 자립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진로 관련 전문가가 투입되는 것이 아닌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문제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제공하게 될 진로 및 취업 관련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구조화되지 않았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에 모든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업무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상정, 2020). 따라서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의 어려움을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decnet work)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있었다. 개념도 차원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탐색에서의 어려움은 물질적인 제약 뿐만이 아닌 관계적 제약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관계에 있어서는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이 진로탐색에서 한 차원을 이루

고 있으며, 이를 상담 기관 홍보 촉진과 관계 네트워트를 넓힐 수 있는 정기적 행사 진행 등의 기회가 제공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 어려움이 단지 보호종료 기간에서의 경험이 아닌 유년기 시절부터 이저와져 온 경험의 축적임을 확인함으러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 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연구와 정책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불리는 시기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개선척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보호 기간인 유년기 시절의 경험들은 분리되어서 고려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본 연구는 강조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호 종료 후의 지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보호 기간 내의 지원방안도 고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과 어려움은 유년기 시절의 제한된 경험들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억압하게 된 환경과 교육들로부터 왔음을 보고되고 있다. 보호 인력과 보호 기간의 한계로 인한 통제는 분명한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본 연구의 대표문장들을 고려해 예를 들어 보호 아동들에게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상업고등학교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거나 어린시절부터 다양한 직업상을 경험하거나 배울 수 있는 교육이나 체험을 추가적으로 더 제공되어짐으로써 추후 진로 탐색 때 좋은 자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 기간에서부터의 고려되는 자원들을 제공하는 개선책들을 반영해야한다. 이는 PWT에서 제공한선행변인인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소외에서의 어려움을 더 깊기 탐색한 것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맞는 진로 교육들에 대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 직전에 받는 진로 교육들은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교육들임을 확인되었다. 진로 교육 뿐만이 아닌 다른 자립준비를 위한 교육들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 될 뿐 정작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많이 보고되었다. 이는 불규칙적인 교육으로 혼자 살아보는 경험이 되어야하는데 일괄적으로 함께 진행되거나, 본

인이 판단해서 진행해보는 것이 아닌 해야할 목록을 그대로 따라하는 교육으로 실제 혼자 자립을 할 때 다양한 상황과 경우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진로 교육들은 대부분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발달을 고려하지 못하고 제공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발달은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대학을 진학하는 진로발달과 다른 특성임을 이해하고 진로 교육이 개선되어져야한다. 일례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장점과 이루고 싶은 꿈을 나열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의 환경과 그들의 특징을 이해되지 못한 교육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립준비에서 필요로 되는 진로교육으로 후속지원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자기 이해 및 내적자원 탐색 기회가 이전에는 적기 때문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되어질 수 있다. 또한 진로와 당장의 생계를 위한 자립과도 연결과 추후에도 진로가 바뀔 수 있음을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교육도 제공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구는 김현령 (2021)의 연구를 기반으로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수행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개념도 연구방법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제대로 보고 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최윤정, 2019).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분 전체 행렬 신뢰도 계수를 산출 및 평균 평정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특정한 지역과 특정 성별에 몰렸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법에서

요구되는 최소 인원인 8명을 충족하였고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연구 참여자의 최종학력과 취직 경험들을 다양하게 포함하였음에도 국내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표집되었다.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의 진로탐색 어려움의 인식을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고용 문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시장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 다양한 수 있다 (문영만 & 홍장표, 2017) 성별에 있어서도 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화를 두는 것에 있어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해당 연구는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드 점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가정 외 보호는 그룹홈 등 다양하며, 특히 조부모로부터의 보호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발달과 경험은 분명히 다른 특징들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들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들 또한 현저히 부족하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들은 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들 뿐만이 아닌 넓혀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도 결과를 분석하여 척도를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현령, 2021; Kane & Trochim, 2007). 김예린, 유순화, 안진영 (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시설보호 하동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인 62개의 프로그램 중 단 1개의 프로그램만이 진로를 주제로한 프로그램인 근거에 따라 진로 프로그램에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진로 탐색의 어려움은 전생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이라는 보호 환경에서 진로 탐색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험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나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41-69.

김기중, 오연풍. (2017). 엘리트 태권도선수의 진로탐색 행동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6*(1), 661-682.

김문길, 정은희, 원종욱, 임완섭, 김기헌, 박형존. (2017). 2017 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성과측정 및 효과분석 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1-90.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수임, 김창대. (2009). 진로상담 :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

김예린, 유순화, 안진영. (2018). 시설보호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한국청소년연구, 29*(3), 71-99.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의 자립준비 경험-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들. *한국아동복지학, 62*, 93-129.

김태환, 정철영. (2019).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의 조절효과.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2), 73-95.

김하나, 이수진. (2019). 대학생의 내재적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진로교육연구, 32*(4), 165-186.

김현령. (202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 숙련상담사의 인식에 관한 개념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고관우, & 김동주. (2012). 장애인의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37, 5-26.

공윤정. (2014).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15*(1), 27-43.

곽미선, 홍은선, 정지은. (2020). 한국 대학생 진로적응반응도구(K-SCCI)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21*(5), 47-67.

권성은, 안진아. (2020). 취업준비생의 지각된 상황적 제약과 취업스트레스 간 관계: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와 진로통제소재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33*(2), 33(2), 67-88.

나혜원, 김안나. (2020). 대학생 진로탐색 및 진로의식의 영향요인 분석: 학생참여의 성장궤적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3), 23-54.

남지은, 남지혜, 김동일. (2020). Multicultural Competence for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 Focus on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1043-1068.

라수현, 김창대. (2022). 즉시성 개입에 필요한 상담 역량: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3), 691-718.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일반 :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Concept Mapping)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교육과학사.

박숙경, 이지연. (2020). 진로결정 과정에서 여자 대학생이 인식하는 제약과 대처에 관한 질적 연구: 일의 심리학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001-2035.

박애실. (2022). 자살위기상담 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에 대한 탐색. ***상담학연구, 23***(4), 205-233.

박윤희. (2016).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서울 소재 S대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9***(1), 165-183.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22***(3), 69-96.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신윤정, 이은설. (2018). 대학생의 조절초점과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관계 내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적응의 진로구성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1***(2), 91-112.

안진아, 정애경. (2019). 일의 심리학 이론의 한국 진로상담 적용 방안. ***상담학연구, 20***(2), 207-227

안희란, 이용교. (2020). 시설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교육에 대한 요구. ***청소년복지연구, 22***(2), 61.

안희란, 이용교. (2020).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의 만족하는 진로 찾기 관련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7*(3), 1-27.

양은별, 김태우, 박은혜, 이소연, 정익중. (2015).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청소년 및 가정외보호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311-331.
이상정. (2020). 가정외보호아동의 자립준비 경험과 실태. **동광, 115**, 28.
이상정. (2021).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개선의 쟁점. *보건·복지 Issue&Focus, 410*, 1.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6*(1), 연구보고서 2019-22.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애, 김시아, 김지선, 정익중. (2019).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5*, 23-56.
이정애, 정익중. (2019).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자립경험. *학교사회복지, 46*, 129-166.
우예영, 김동일. (2020). 심리적 진로장벽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8*(2), 203-221.
유설희, & 한세영. (2022).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아이들: 코로나19 시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 *인간발달연구*, 29(3), 133-162.
유정미, 최윤정. (2021). 특성화고 입학생이 고교 진학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진로교육연구, 34*(1), 157-174.
유현실, 김창대. (2011).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2), 241-268.
장현진, 이지혜. (2012).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5*(2), 51-74.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7*, 9-42.

전주람, 신윤정. (2022). 50-60대 북한이주남성들의 일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일의 심리학 이론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4*(1), 195-240.

지은, 신윤정, 김지선, 최서정, Ayse Isilay Konuk. (2021).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동향 및 질적지표 분석. *통일인문학, 86*, 325-358.

최경옥, 김수정. (2018). 그룹홈 퇴소 청소년의 자립 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44*(3), 211-245.

최규하, 주영아. (2022). 중년기 성인이 인식하는 자기이해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3), 931-951.

최동선, 정철영.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2*, 115-142.

최수미, 김동일, 김주선. (2019). 개념도 방법을 통한 교육사각지대 학습자 특성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비교. *학습장애연구, 40*, 69-90.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 -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취학률 및 진학률”, e-나라지표, 2021년 12월 20일 수정, 2022년 12월 8일 접속,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허보연, 김봉환. (2012). 개념도 방법을 통한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21-639.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Bedi, R. (2006). Concept 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26-35.

Blustein, D. (2008). The Role of Work in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63*(4), 228-240.

Blustein, D., Kenna, A., Gill, N., & DeVoy, J. (2008).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Framework for Counseling Practice and Public Polic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6*(4), 294-308.

Courtney, M., & Hook, J. (2017). The potential educational benefits of extending foster care to young adults: Findings from a natural experi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2*, 124-132.

Duffy, R., Blustein, D., Diemer, M., & Autin, K. (2016).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2), 127-148.

Duffy, R., Velez, B., England, J., Autin, K., Douglass, R., Allan, B., & Blustein, D. (2018). An Examination of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With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Employed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3), 280-293.

Flum, H., & Blustein, D.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3), 380-404.

Goodyear, R., Tracey, T., Claiborn, C., Lichtenberg, J., & Wampold, B.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Grotowska-Leder, J., & Kudlińska-Chróścicka, I. (2021). The Transition from Foster Care to Adulthood in Poland. *Population Review, 60*(2), 118-134.

Kane, M., & Trochim, W. M.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Inc.

Krieshok, T., Black, M., & McKay, R. (2009).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75-290.

Leloux-Opmeer, H., Kuiper, C., Swaab, H., & Scholte, E. (2016).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Foster Care, Family-Style Group Care, and Residential Care: A Scoping Revie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8), 2357-2371.

Lounsbury, J., Park, S., Sundstrom, E., Williamson, J., & Pemberton, A. (2004). Personality, Caree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est of a Directional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4), 395-406.

Paulson, B.,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17-324.

Porfeli, E., & Skorikov, V. (2010). Specific and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46-58.

Rosas, S., & Kane, M. (2012). Quality and rigor of the concept mapping methodology: A pooled study analysi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5*(2), 236-245.

Steenbakkers, A., Van der Steen, S., & Grietens, H. (2018). The

needs of foster children and how to satisfy them: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1*(1), 1-12.

Stumpf, S., & Lockhart, M. (1987). Career exploration: Work-role salience, work preferences, beliefs, and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258-269.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Trochim, W. (1993). The reliability of concept mapping. *In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Vol. 6).

Trochim, W., & McLinden, D. (2017). Introduction to a special issue on concept mapping.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60*, 166-175.

Truscott, D., Paulson, B., & Everall, R. (1999). Studying participants' experiences using concept mapping.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5*(3), 320-323.

<부록>

<부록 1> 다차원분석 결과 좌표의 값

<부록 2>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덴드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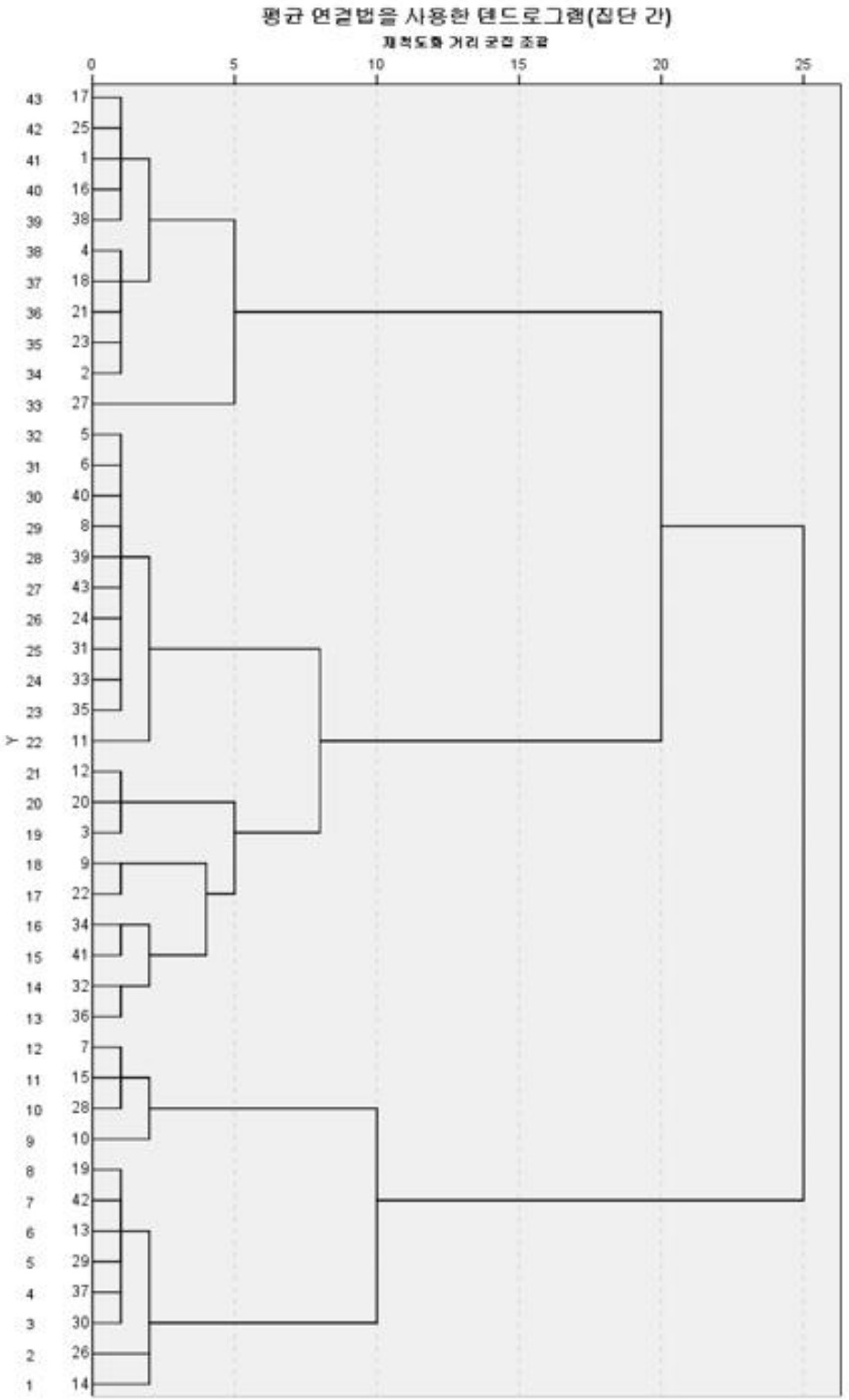
<부록 3> 중심연결법(centroid linkage) 덴드로그램

<부록 1> 다차원분석 결과 좌표의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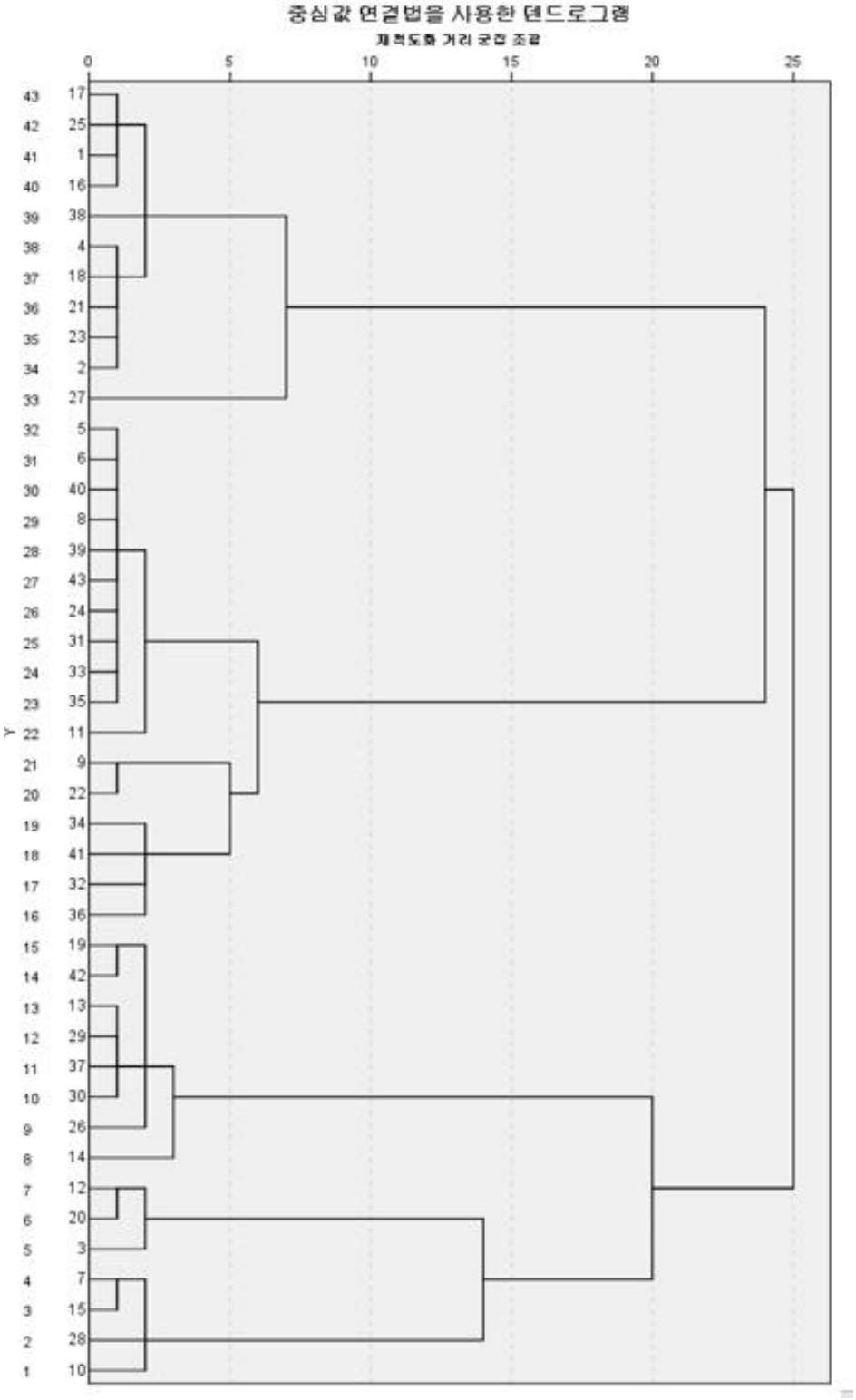
번호	진술문	x-좌표값	Y-좌표값
1	내가 성장기를 보낸 시설은 퇴소 후 취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0.37	-10.52
2	학교에서 진로 관련 조언을 주는 선생님들은 취업률에만 관심 있었다.	0.74	-1.30
3	거주할 곳이 안정적이지 못해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선호하였다.	-0.21	1.67
4	입시 준비 시 보호종료 아동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	1.09	-1.29
5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을 몰라 진로 관련 질문을 해보지 못했다.	1.38	0.35
6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까다롭다.	1.30	0.41
7	시설동기들과의 진로발달 과정이 다르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1.89	1.18
8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정보가 아니였다.	1.33	0.66
9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받게되면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양한 유급 직업체험을 할 수 없었다.	0.54	1.36
1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상대적으로 어린나이로 인해 직장내에서 차별을 받았다.	-1.73	0.49
11	직업 정보 획득이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해 해야했지만, 인터넷 서칭을 사용한 정보들은 상세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았다.	0.89	0.93
12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당장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했다.	-0.68	1.42
1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사회기업에 취직하였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가치관과 비전에 실망하게 되어 그만 두었다.	-1.54	-0.59
14	금전적 안정이 우선시되다 보니 일에 대한 성취감을 찾기 힘들었다.	-1.63	-0.12
15	시설친구들과 가까이 사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무리하게 찾았다.	-1.77	0.91
16	주변에 진로 관련해서 물어볼 어른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0.51	-1.37
17	시설에서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이 많았다.	0.24	-1.35
18	퇴소하기 전까지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한정적이였다.	1.02	-1.09
19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먼저 해주는 어른이 없었다.	-1.05	-0.52
20	진로에서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0.44	1.43
21	퇴소하기 전까지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다.	0.66	-1.10

22	주변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지 않았다.	0.37	1.45
23	고등학교 안에서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전공을 바꿀 수 없었다.	0.82	-1.02
24	부가적인 학업적 지원의 부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1.06	0.53
25	고등학교 진학부터가 퇴소 후의 삶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중학생 때부터 전공을 선택했어야 했다.	0.24	-1.32
26	시설은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할 수 밖에 없던 환경이었기에 퇴소 후인 진로선택후에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	-1.17	-1.05
27	시설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인한 반항심이 생겨 엇나감으로써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없었다.	-0.29	-1.65
28	진로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하는 부담감이다.	-1.48	0.85
29	퇴소 전에는 뭐든 스스로하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갖기 어려웠다.	-1.45	-0.62
30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경험이 적어서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다.	-1.29	-0.73
31	시설에서 학업외의 배우고 싶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금전적 지원해줄 수 없었다.	0.98	0.42
32	지원받는 시기가 지나서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	0.30	0.83
33	전문적인 입시 및 진로 컨설팅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없었다.	1.00	0.26
34	퇴수 후에 다른 진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0.17	0.85
35	시설에서 받은 진로교육은 실용적이지 못했다.	0.77	0.19
36	대졸학력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0.43	0.38
37	나를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1.60	-0.48
38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조건을 미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0.44	-0.97
39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0.84	0.58
40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1.23	0.51
41	직업 조건 및 요건에 관련해 찾아야한다는 조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0.08	0.43
42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나의 한계로 느껴졌다.	-0.98	-0.62
43	시설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대학진학을 권유를 한 것이다.	0.91	0.62

<부록 2>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덴드로그램



<부록 3> 중심연결법(centroid linkage) 덴드로그램



Abstract

A Concept Study on Youth's Career-related Difficulties after Discharging from Foster care

Allis SuhJeong Choi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ths who had been raised in foster care should prepare for discharge protection when they reach 18 years old in Korea. Every year, about 56% of 2,600 children have their protection expired and start to live independently. Since these young people stand on one's own feet with a poor protection system and lack of psychological support, they struggle with difficulties in a settlement after discharge. However, previous studies generally focused on the short-term effectiveness of macroscopic policies and systems.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observe a microscopic perspective on youths' experience

searching for their career to maintain healthy settlements and to reach out to their own decent work. A concept mapping mixed research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ose who recognize the potential structure of difficulties in the career exploration of young people after discharge from the residential care institu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cus questions on 9 young adults within 5 years after the end of protection. A total of 43 final statements were made by synthesizing and editing the derived statements and used for secondary data collection. The conceptual diagram was derived by conducting multidimensional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hich derived five clusters in two dimens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difficulties in career exploration for those who are discharged from foster care are summarized by the "During protection period ~ After discharge period", and the “Need of relationship ~ Lack of objective information" dimensions. The recognized five clusters were; cluster 1 'Rigid career environment in diversity' (11 statements), cluster 2 'Lack of career information acquisition opportunities' (11 statements), cluster 3 'Economic security prioritized in career choice' (9 statements), cluster 4 'Fear of loss of bond' (4 statements), and 'Lack of opportunities for self-understanding and inner exploration' (8 statements).

Keywords : Career, Career Constraints, Career-related Difficulties, Discharging from Foster Care, Concept Mapping

Student Number : 2021-23641